

광 고

원양산업

제 1142 호

(2022년 2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원양 핵심어장 어촌뉴딜 ODA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 개최 / 4
- 3월 이달의 수산물로 '참치' 선정 예정 / 4
- 남태평양 전갱이, 올해 11,540톤까지 어획 가능 / 5
- 2021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 5
- 우리 원양어선, 태평양에서 한 달간 표류중인 조난자 구조/ 6

■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 7

■ 요리 만들기 / 16 (통오징어짬뽕)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22년 1월 보고 내용 / 17



해외수산물정보

■ 참치어업 동향

- 공급 개선으로 방콕 가다랑어 가격 하락 / 21
- 키리바시, 첫 코로나19 봉쇄 실시 / 21
- 태국 참치캔 수출량 5년간 최저 / 22
- PNG, 어업 복합단지 건설 계획 추진 / 22

- 태국, 2021년에 가다랑어 과매수? / 23
- Pirou사, 세이셸에 조선 기지 건립 / 23
- 중서부태평양 12월 가다랑어 어획량 소폭 회복 / 24
- Tri Marine, 태평양 참치 연승 어업 MSC 인증 시도 / 24
- 日 냉동 눈다랑어, 가격 하락 / 25
- 日 도요스시장 2021년 눈다랑어 상장 20% 감소 / 25
- 日 재무성, '21년 12월 참치 수입 통계 발표 / 26
- 日, 국제 경기 회복으로 참다랑어 수급난 / 27
- 日 최대 초밥 체인, 세포 배양 수산 회사와 제휴 / 27
- 日, '21년 11월 2인 이상 세대 참치 지출 발표 / 27
-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1,331 달러 / 28
- IOTC, 세이셸 참치 쿼터 감축 조치 / 28
- 만타 가다랑어 가격 1,725 달러로 상승 / 29
- 멕시코-에콰도르 FTA 협상에서 참치 원산지 이견 / 29
- 가다랑어 수은 문제없다. / 30
- 스페인군, 기니만에 순찰선 파견 / 30
- 참치캔에서 빼낸 기름, 재사용해야 하는 이유 / 31
- 식물성 기름 가격 소폭 하락 / 31
- 싱가포르 MGO 765.5 달러, 최고 수준 / 32
- 수산물 통조림 시장 10년 후 2배 성장 예상 / 32
- EU 내 참치캔 비롯 수산물 VAT 감면될까? / 33
- 국제채낚기재단, 조달 투명성 플랫폼 시작 / 33
- 中 저장성, 참치 기업에 조세 지원 정책 계속 / 34
- 최초의 AI 위성 부표 출시 / 34
- 아이슬란드, EEZ 내 참다랑어 어업 허가 추진 / 35
- 2021년 베트남 참치 수출 회복 / 35

Contents

■ 오징어어업 동향

- 아르헨티나, 중국 오징어 선단 감시 순찰선 배치 / 36
- SPRFMO, 남미 공해 오징어 보호 조치 미채택 / 36
- 日 냉동 살오징어류 '21년 수입 8만 3,064톤 / 37
- 中, 포클랜드 영유권 분쟁서 아르헨티나 지지 / 37

■ 명태어업 동향

- 러시아, 극동 명태 어업 개시 / 38
- 명태 가격 급등 가능성 제기 / 38
- 러시아, 2021년 對중국 수산물 수출 70% 급감 / 39
- 美 Aquamar社, 연육 호황기 적극 활용 / 39
- 러시아, 북방영토 포함 쿠릴열도 면세 법안 추진 / 40
- 노레보社, 2022년 명태 H&G 中 수출 전면중단 계획 / 40
- 알래스카 태평양대구·명태 A시즌 시작 / 41
- 日 마루하니치로, 명태 취급량 61만톤으로 확대 / 41
- RFC, 신조선 가공 설비에 2억 달러 투자 / 41
- 中 칭다오항, 러시아 운반선에 재개방 / 42
- 러시아 2021년 어업 생산량 505만톤 / 42
- 日 '22년 명태 TAC 25만톤...1% 감소 / 42

■ 꽁치어업 동향

- 日 '21년 11월 말 꽁치 재고 약 7,265톤 / 43

■ 각국 수산 동향

- 美 하원, 미국경쟁법 통과 / 44
- H&G 대구 가격, 상승 추세 / 44

- 美 바이든 행정부, 수산물 노동 인권 문제 초점 / 45
- 호주, 인도에 이빨고기 수출 / 45
- 中 연안 도시, 원양어업 보조금 지급 경쟁 / 46
- 中 농업농촌부 제14차 5개년 계획 발표 / 46
- 중국 2021년 수산물 수입액 141억 달러 / 47
- 통가 화산 폭발로 페루 해변서 기름 유출 / 47
- 바렌츠해 대구·해덕대구 쿼터 이월 / 48
- 크릴 오일,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감소 효과 재확인 / 48
- 美 2021년 수산물 소매 매출 기록 경신 / 49
- 스페인, 부수어획 저감 위한 국가 계획 추진 / 49
- MSC 어업 표준 변경 관련 초안 발표 / 50
- 공정 무역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 50
- 2021년 수산업계 인수합병 65억 달러 돌파 / 51
- 노르웨이 고등어 '21년 수출량 30% 증가 / 51
- 올해 4주차 노르웨이 고등어 수출 가격, 2년 내 최고 / 52
- 日 2021년 고등어 수출량 3.2% 증가 / 52

■ 쉬어가는 난 (시)

- 먼 향해 <신석정> / 53

■ 국내 수산 뉴스

- 2021년 우리나라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1.2% 늘어 / 54
- 연도해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책선원 수준으로 / 54
- 김현무 항해사 '유퀴즈' 출연, 원양 현황 소개 / 55
- 오징어, 우럭, 광어 등 우리 수산물 8종 40%까지 할인 / 55
- 서아프리카 해역 운항선박, 여전히 특별한 주의 필요 / 56
- 김민종 前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임명 / 56

‘원양 핵심어장 어촌뉴딜 ODA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 개최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 구체화, 예산확보 추진

해양수산부는 ‘원양 핵심어장 어촌뉴딜 ODA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최근 발주했고 지난 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이규선 과장, 이성재 사무관, 우리 협회 신현애 상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권현욱 센터장, 서규혁 행정관, 동원산업 김병건 상무, 부경대학교 이상고 명예교수, 한국농어촌공사(용역기관) 채종영 차장 등이 참석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날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로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의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4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 후 예산 확보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외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간보고회는 3월에 있을 예정이다.



사업구분	세부내용	시설규모	예산(백만원)	
HW	커뮤니티센터	• 공유주방, 어업훈련센터, 도서관, 공동 회의장, 태양광발전시스템(지붕형) 설치 등	A동(563㎡), B동(563㎡), 조경	1,474
	어시장 태양광	• 지붕형 태양광 패널 설치	108㎡, 100㎡ 2개소	83
SW	Jetty 시설	• 물양장, 연결호안, 크레인	L=160m	1,550
	역량강화	• 단기교육 190명(투발루 : 기술교육 80명, 한국어교육 110명) • 장기교육 10명(한국 : 초창연수)	단기교육 190명, 장기교육 10명	600

※ 사업지원비(설계, 감리 등), 운반비, 부대비용 제외

3월 이달의 수산물로 ‘참치’ 선정 예정

8월 오징어, 12월 대구 예정

올해 3월 이달의 수산물로 참치류, 멍게·미더덕이 선정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매월 2개의 어종을 이달의 수산물로 정하고 보도자료 배포, 어식백세 블로그(한국수산회 운영) 게시물 게시, 포스터 배포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참치가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것은 2011년 제도 실시 이후 처음이다. 3월은 3월 7일 참치데이가 있는 달로 참치가 이달의 수산물로도 선정되며 소비촉진에 힘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8월에는 오징어, 12월에는 대구도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될 예정이다. 오징어(갑오징어 제외)는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처럼 원양 어획물이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데에는 해양수산부의 노력이 있었다.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는 유통정책과에 원양 어종의 이달의 수산물 선정을 건의했다. 유통정책과에서는 이를 일부 수용했다.

우리 협회는 원양산업과의 요청으로 이달의 수산물 원양 어종 추천 건의자료(1월 명태, 참다랑어/ 2월 이빨고기/ 3월 참치/ 4월 눈다랑어/ 5월 오징어/ 6월 황다랑어/ 7월 가다랑어/ 9월 대구/ 10월 쫄면/ 11월 과메기/ 12월 대왕 오징어)를 제출한 바 있다.

남태평양 전갱이, 올해 11,540톤까지 어획 가능 제10차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총회 결과, 전갱이 추가 확보

올해 남태평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전갱이 어획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남태평양지역 수산물관리기구 제10차 총회(2022.01.18.~28.)에서 우리나라의 2022년 전갱이 어획한도량이 지난해 10,027톤에서 15% 증가한 11,540톤으로 결정되었다.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는 2012년에 설립된 이후 전갱이 자원 상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고, 각 국가별로 어획 한도를 할당하는 등 자원 회복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전갱이 자원 상태가 악화되었던 2013년에는 전갱이 총허용어획량(TAC)을 과학적으로 권고된 44.1만 톤보다 적은 수준인 43.8만 톤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전갱이 자원이 회복세에 들어섰고,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는 점진적으로 전갱이 총허용어획량(TAC)을 늘려왔다.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는 전갱이 산란자원량이

지속생산가능자
원량의 100%
이상으로 회복
했다는 과학적
분석에 따라 이
번 제10차 총회



에서 2022년 총허용어획량(TAC)을 지난해 78.2만 톤에서 15% 증가한 90만 톤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에도 전년과 같은 비중인 11,540톤을 할당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제10차 총회에서 남태평양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시행하는 오피서버 프로그램 적합성 평가(오피서버의 중립성·독립성 보장, 적절한 훈련 및 안전장비 제공 등 13개 항목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15개 회원국 중 총 5개 회원국(한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대만)만 오피서버 프로그램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2021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원양어업 단독, 합작, 관련사업체 통계자료 수록

우리 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는 최근 '2021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에는 2020년 기준 원양어업의 업체·어선, 생산·수출, 종사자, 재무 현황 등 원양 부문 주요 통계가 수록되었다.

아울러, 합작기업체의 업체·어선, 생산, 종사자 현황과 관련사업체(해의 유통·가공·양식 등) 진출 등의 자료도 담겼다.

우리 협회는 회원사, 정부 등에 정보 제공 목적으

로 '원양산업 통계연보'를 지난해 9월에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위탁받아 실시한 조사로 원양 업계 재무상태 등 보다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수산협력센터는 동 보고서를 관련 기관, 업체 등에 배포했으며 단독 관련 보고서는 원양산업 종합정보시스템(<http://www.ofis.or.kr>) 서비스-원양어업통계조사-보고서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우리 원양어선, 태평양에서 한 달간 표류중인 조난자 구조 동원산업 테라카호, 어린이 2명 포함 승선자 10명 구조

우리 원양어선이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서 한 달 동안 표류하고 있던 파푸아뉴기니 소형 보트 승선자 10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승선자 중에는 어린이도 2명 포함되어 있다. 이 소식은 파푸아뉴기니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동원산업(주) 소속 선망선 테라카호(1,811톤)는 지난 1월 24일 06시경(현지시간) 솔로몬 수역을 항해하던 중 소형선박(MILESIARO 02호)에서 승선자들이 손을 흔들며 구조 요청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동했다.

테라카호 선원들은 이 선박이 자력으로 항해가 불가능하고 한 달째 표류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테라카호에 승선시켜 음식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파푸아뉴기니 수산청 및 항만청에 연락을 취했다.

동원산업은 파푸아뉴기니 항만청과 협의하여 구조자를 구조 해역에서 가까운 솔로몬 호니아라에 하선시키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해 입항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동원산업은 소속 운반선 하나로호를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구조자들은 하나로호에 편승해 1월 31일 건강한 상태로 파푸아뉴기니 라바올항에 하선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MILESIARO 02호는 지난해 12월 23일에 파푸아뉴기니 뉴아일랜드섬 남부 주요 항구도시인 나마타나이(Namatanai)에서 출발해 탕가(Tanga)섬으로 향하던 중 엔진에 문제가 있어 계속 표류했다. 다행히 배에는 물과 낚시줄, 비상 필수품이 갖춰져 있어 탑승자들은 1개월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

한편, 파푸아뉴기니 구조협조본부(MRCC)는 우리나라 정부, 국민, 동원산업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동원산업에 송부했다.

아울러, 강호증 주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 대사는 동원산업에 서한을 보내 테라카호의 선행이 파푸아뉴기

니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음을 알려왔다. 강호증 대사는 이러한 소식이 우리 기업에 대한 인식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국격을 높여줬다고 언급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우리 협회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언론, 해수부 등에 적극 알렸으며 SNS에도 게시했다.

그 결과 KBS 뉴스7(1.27), KBS 뉴스광장(1.28), 경향신문(1.27), 부산일보(1.27), 국제신문(1.27), 한국수산경제(2.1), 어민신문(2.1), 수산인신문(2.1) 등 다양한 언론사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다.

우리 협회 최경삼 전무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원양어선은 과거에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위험에 처한 선원을 구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조업하는 어장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 2022년 정기총회 대비 관련 업무추진
 - 2021년 주요업무보고서 최종
 - 2021년 주요업무보고서 화보 초안작성
- '22.1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2.1.17 / 협회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2개사 2척 21.7억원 원안의결
- 2021년 주요업무보고서 총괄 자료 취합 및 정리
- 2021년 12월분 업종별회비 부과 추진
- 금년도 총수입 및 총지출 예상액 등 자료 분석
- '21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 관련 업무 추진
 - 재무제표, 부속명세 등 작성
- '21. 12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서초세무서)
- '22. 1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 및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서초세무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과세자료 제출
- '21년 12월분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 분	생산량(M/T)	전년비(%)
합 계	438,825	101
- 참 치	278,031	92
· 횡감용	34,833	96
· 통조림용	243,198	91
- 명 태	27,779	102
- 오징어	68,301	187
- 꽂 치	4,365	73
- 기 타	60,349	94

기획홍보부

- 원양어업 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업무추진
 - 가. 이영호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면담
 - 일시/장소 : '22.2.9, 13:00/ 서울
 - 참석자 : 이영호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회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원양어업 역사박물관 건립 대선공약 포함 건의 ('원양노사 원양어업 역사박물관 건립 공동 건의서' 전달)
- 원양산업지 1월호 제작, 발송(310권)
 - 협회소식 5건(신년사, 해양수산부 60억 규모 투발루 ODA 예산확보 추진, 원양어업경영자금 선박 안전 관련 수리·개조 시 금리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연 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외국 수입 원양어선 어 로용품 사전 면세 가능)
 - 국내소식 5건, 해외수산정보 66건
 - 명예해양수산물 보고사항, 협회 업무동향 등 정리, 교정 및 편집
-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139호 1.12, 140호 1.19, 141호 1.26, 142호 2.9/ 회원사 임직원 카 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139호 정보 22건(방콕 가다랑어 가격 3년만에 최고치/ RFC, 올해 말 명태 H&G 생산 중단 예정/ 日 '21년 꽂치 최종 어획량 1만 8,291톤)
 - 제140호 정보 23건(방콕 냉동 가다랑어, 톤당 1,650 달러/ 러시아 2021년 어업 생산량 505만톤/ 美 바이든 행정부, 수산물 노동 인권 문제 초점)

- 제141호 정보 15건(국제채낚기재단, 조달 투명성 플랫폼 시작/ 러시아, 극동 명태 어업 개시/ 호주, 인도에 이빨고기 수출)
- 제142호 정보 34건(태국, 2021년에 가다랑어 과매수?/ 명태 가격 급등 가능성 제기/ SPRFMO, 남미 공해 오징어 보호 조치 미채택)

○ 보도자료 및 기고문 작성·홍보

- 가. 우리 원양어선(동원산업 소속), 태평양에서 한 달간 실종된 선박 구조 (1.26, 부산방송, 부산일간지, 수산전문지)
 - 방송 : KBS 뉴스7(부산, 1.27), KBS 뉴스광장 (1.28)
 - 지면 : 한국수산경제(2.1, 2면), 어민신문(2.1, 5면), 수산인신문(2.1, 6면), 한국수산신문 (2.14, 6면)
 - 인터넷 : 경향신문(1.27), 부산일보(1.27), 국제신문(1.27)

나. 중서부태평양 참치 자원 개선 관련 자료 협조, 관련 기사 게재

- 참치가 멸종 위기라고? “No” (현대해양 2월호, 46~47면)
- WCPFC 다랑어류 지속 가능 상태 확인, IUCN 적색 목록 등급 개선, 참치업계와 국제기구 노력 결실

다. SNS 게시(페이스북 9건, 인스타그램 3건)

- 2021년 해외수산 소식 정리(참치, 오징어, 명태, 쾡지)/ 참치캔 기름 오메가3 및 비타민D 풍부/ 크릴 오일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감소 효과 재확인/ 원양어선 선원 유 퀴즈 출연/ 동원산업 테라카호 조난자 구조/ 참치캔 수은 문제없다

○ 부산일보 수산담당 기자 면담

- 일시/장소 : '22.1.26, 12:00/ 부산
- 참석자 : 부산일보 박혜량 기자, 원양노조 정찬호 부장, 박준형 과장 / 홍보부 김영수 과장, 김민재 사원
- 내용 : 수산담당 기자 교체에 따른 업무협의

- '22년 3월 이달의 수산물 참치 선정 관련 업무추진 가. 선사(동원산업, 사조산업), 유통(사조씨푸드, 동원 F&B), 온라인 쇼핑몰(동원디어푸드, 사조대림, 사조씨푸드) 관계자에 연락, 3월 이달의 수산물로 참치 선정 예정 안내

나. 수산회에서 사진자료 요청, 송부

회원지원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추진

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마련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일시/장소 : '22.1.14, 14:00/ 협회 회의실(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연수원 및 업계 / 협회 회원지원부 부장, 과장, 사원

-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 매뉴얼 최종 발표 등

나. 제5차 업계 TF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1.1.18, 16:00/ 화상회의
- 참석자 : 업계 TF 위원 / 협회 회원지원부 부장, 과장, 사원

- 내용 : 통합 매뉴얼 세부내용 수정작업 추진 관련 협의 등

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1차 간담회

- 일시/장소 : '21.1.20, 14: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참석자 : 업계 TF 위원 / 회원지원부 부장, 과장
- 내용 : 통합 매뉴얼 세부내용에 대한 수정작업 등

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2차 간담회

- 일시/장소 : '21.1.21, 13:30/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업계 TF 위원
- 내용 : 통합 매뉴얼 세부내용에 대한 수정작업 등

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용역을 통해 마련한 이행 매뉴얼 송부(회원사/1.27)

-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이행 매뉴얼 및 이행 체크리스트 송부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신고 등 안내 (회원사/2.3)
 - 선상투표신고 기간 : '22.2.9-2.13
- 주부식 표준식단 마련을 위한 TF 노사 실무협의
 - 일시/장소 : '21.1.12, 16:30/ 원양노조 사무실
 - 참석자 : 원양노조 박진동 위원장, 마창성 본부장 / 협회 회원지원부 부장, 과장
 - 내용 : 주부식 표준식단(안) 설명 및 협의
- 선원정책실무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1.1.17, 14:00/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해양대, 선원단체, 선주단체 등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2022년 선원정책 시행계획안 의견조회 등
- 원양어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관련 업무추진
 - 가. 원양어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과정 알림 및 추가 교육 수요조사(회원사/1.10)
 - '22년도 정규 교육일정 2회, 회차별 정원 20명
 - 나. 원양어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과정 추가개설 요청 (연수원/1.14)
 - 수요인원 5개사 11명('22.2.14-2.15)
- 다. 원양어선 22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요조사 (회원사/1.18)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내용 추가 및 교육대상자 확대 추진
- 라. 원양어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수요 조사 결과 알림 (해수부/1.25)
 - '22년 교육 수요인원 6개사 46명
- 마. 2월 원양어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과정 개설 알림 (동원산업 등 5개사/1.26)
 - 5개사 11명
- IUU어업에 대한 과징금부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송부(해수부/1.11)
 - 협회장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등 송부
- 원양어선 2021년 면세유 사용 현황 자료 제출 협조 요청(동원산업 등 9개사/1.17)
 - 21년도 면세유 사용현황 조사
- 2021년 4분기 외국인선원 고용현황 보고 (해수부/1.17)
 - 35개사 186척 총 4,324명
 - 인니 3,416명, 필리핀 603명, 베트남 268명 외
- 일본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 첨부 의무화에 대한 의견 제출(해수부/1.18)
 - 문어의종(오징어, 꼰치, 정어리, 고등어)을 직접 수출하는 원양업체는 현재 없지만, 어종확대 등을 감안하여 관련제도 도입 시 수출업체에 과도한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도 시행 당부
- 22년도 EU수출 등록선박 정기 위생점검 일정 알림 (수품원/1.21)
 - 22년도 정기 위생점검 수검 희망일정 제출
 - 21개사 65척
-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면접위원 참석
 - 일시/장소 : '22.2.9, 10: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참석자 : 업계 면접위원 등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22년도 오션폴리텍(어선5·6급, 어업·기관 교육과정 면접위원 참석
- '22년 원양어선 외국인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 점검 관련 업무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2.2.11, 14:00 / 세종청사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 협회 회원지원부 부장, 사원
 - 내용 : 22년도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점검 방향 및 방법 논의
- 원양어선 안전관리카드 자료갱신 요청 (회원사/2.4)
 - 선원정보 및 선박현황 등

- 주간 건강과 질병 배포 알림(회원사/2.7)
 - 코로나19 보고서, 역학·관리보고서 및 만성질환 통계 등
-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
 - 국적선사 소속 편승자 정보 확인(통영, 부산검역소 /1.26, 1.27)
 - 7명(한국 3명, 인니 2명, 필리핀 1명, 베트남 1명)
 - 원양어선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제출 (해수부/1.21 기준)
 - 1차 접종(703명) / 2차(589명) / 3차(120명)
 - 내국인선원 승선 전 PCR 검사 확인 조사자료 제출 (해수부/1.14)
 - 1개사 1척 4명 PCR검사 확인
 - 필리핀 외국인선원(C-3-11) 입국전 방역관리 강화 요청(회원사/1.11)
 - 코로나19 관련 주요사항 재안내(회원사/1.19)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 10-5판) 개정 안내(회원사/12.23)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부산, 여수, 통영검역소/1.26, 1.27)
 - 7명(한국 3명, 인도네시아 2명, 필리핀 1명, 베트남 1명)
 - 원양어선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제출 (해수부/2.11 기준)
 - 1차 접종(810명) / 2차(729명) / 3차(209명)
 - 내국인선원 승선 전 PCR 검사 확인 조사자료 제출 (해수부/1.28)
 - 1개사 1척 5명 PCR검사 확인
 -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일부 개정 안내(방역교 통망 이용 등) (회원사/1.25)
 -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회원사/2.3)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 10-5판) 수정 안내(회원사/2.4)

-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중도폐쇄시 유의사항 준수 철저 요청(회원사/1.6)
- 해적관련 업무추진
 - 22년 1월 청해부대 선박호송작전 계획 변경 알림 (회원사/1.13)
 - 서아프리카 해역 해상강도사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14, 1.18, 1.20)
 - 2021년 서아프리카 해적동향 분석 언론보도 자료 공유(회원사/1.24)
 - 2022년 2월 청해부대 선박호송작전 계획 알림 (회원사/1.24)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사건 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27)
 - 2022년 2월 청해부대 선박호송작전 취소 알림 (회원사/2.3)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위협 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2.3)
 - 2021년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분석자료 알림(회원사/2.7)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위협 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2.9)
- '21.12월분 원양어획물 수출실적 확인

구분	누 계(2021년 12월)			
	수출물량 (kg)	전년 대비	수출금액 (\$)	전년 대비
통조림 용참치	131,066,650	81.8%	169,170,796	87.6%
훗감용 참치	11,980,942	75.9%	127,973,816	125.6%
저서 어류	2,073,264	72.9%	29,803,987	86.8%
오장류	348,112	-	1,287,280	-
새우류	18,324,820	132.4%	15,802,912	146.6%
기 타	639,600	322.4%	1,488,522	429.9%
합 계	164,433,388	85.3%	345,507,313	101.4%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원양어선 조업 선진화를 위한 기획연구 자문 회의
 - 일시/장소 : '22.1.14, 11:00 / 협회 소회의실
 - 참석자 : (사)해양수산물과학기술연구조합 박주삼 이사장 외 1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홍석진 주임연구원 / 협회 해외협력본부장 외 1명
 - 내용 : 참치연승 신조대체 필요성 등 협의
- 전자조업감시(보고)시스템 기능 개선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2.1.14, 11:00 / 영상회의
 - 참석자 : FMC, 과학원, 품관원, 업계 / 해외협력 1,2부
 - 내용 : 전자조업감시(보고)시스템 기능 개선 관련 논의
- 원양어선 지도 점검 계획 알람 및 협조 요청 안내 (1.19/전화원사)
 - (시행기관) 조업감시센터
 - (점검대상) 우리나라 원양어선 및 원양어획물 실은 운반선
 - (주요내용) 국내외 입, 출항 원양어선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확인
-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 추진을 위한 2차 TF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22.1.27, 14:00 / 정부 세종청사
 - 참석자 : 해양수산부, 농어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경대학교 이상고 교수, 업계 / 협회 해외협력본부장
 - 내용 : 투발루 ODA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 및 사업계획(안) 보고, PCP(사업요청서) 초안 검토 등
- 원양 수산물 물가상승 원인 진단 및 러시아 제재 영향 관련 자문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22.1.14, 11: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외협력본부장 및 해외협력 1부
 - 내용 : 원양 수산물 어종별 어가 전망 논의 등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선박정보갱신) WCPFC, IOTC, ICCAT, CCSBT 수역 / 해수부
 - (지역수산물기구보고요건) 참치 RFMO 보고 요건 의견 제출 / 해수부
 - (ICCAT) 2022년 열대성 참치 및 참다랑어 조업 계획 검토 의견 제출 / 해수부
 - (IATTC) 해상전재프로그램 중단 여부 재확인 / IATTC 사무국
 - (원양어업허가장) ICCAT 바다거북 저감조치 규정 검토 / 해수부
 - (WCPFC) 공해상 2개월 추가 FAD 금어기 선택 통보 / 해수부
 - (ICCAT) '22-'23년 ICCAT 해상전재 프로그램 참여 여부 회신 / 해수부
 - (CCSBT) 12월 남방참다랑어 어획실적 및 2월 양륙계획 제출 / 해수부
 - (CCSBT) '21/'22어기 남방참다랑어 최종 어획실적 조사 / CCSBT 출어사
 - (어획실적) 2021년 지역수산물 어획할당량 소진 실적 제출 / 해수부
- 참치어업 지원사항
 - (PNG 수역) 2022어기 입어 허가장 수정 요청 / PNG 수산청
 - (OPRI) 참치연승 강제노동 이슈 워크숍('22.3.7-8) 개최 안내 / 연승업계
 - (어획량 확인) 2022년 태평양, 대서양 눈, 황다랑어 조업실적 확인 / 연승업계

- (주의안내) 코로나 확진 발생에 따른 솔로몬 온통 지역 입, 출항 금지 안내 / 선망업계
- (투발루 ODA) 투발루 ODA 사업 관련 현황 자료 송부 / 농어촌공사 등
- (PNG 수역) 2022어기 입어 허가장 수정 요청 / PNG 수산청
- (NFD) ifims 상 비조업일수 항목(Search and Rescue) 추가 안내 / 선망업계
- (CCSBT) '19-'20년 남방참다랑어 전재실적 확인 요청 / 연승업계
- (어획량 확인) 2022년 1월 태평양 눈, 황다랑어 조업실적 확인 / 연승업계
- (어획실적) 2021년 수역별 어획실적 및 PNA 선원 고용실적 등 조사 / 선망연승업계

해외협력 2부

- 대 러시아 업무추진
 - 명태 : 27,779톤(98%소진), 대구 : 3,471톤(69%소진), 콩치 0톤
 - 러시아 경제제재시 러시아 수역 조업업계 영향 검토 내용 제출(1.26/해수부)
 - 제31차 한·러어업위원회 한국측 통역관 격리면제서 신청 및 면제처리(1.24, 1.27/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 해수부)
 - 제31차 한·러어업위원회 한국측 통역관 PCR검사 결과 제출(2.3/해수부)
 - 제31차 한·러어업위원회 행사 추진 계획 제출(2.4/해수부)
 - 제31차 한·러어업위원회 개최 알림(2.4/북양·대구·콩치위원회)
- 제1차 한·러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방식 : '22.1.19/ 영상회의
- 참석자 : 각 사 대표 / 해외협력본부장 외 3명
- 내용 : '22년도 관세감면 신청물량 조정, 합작선 유예기간 시 기본운영회비 부과 방안 변경
- 제31차 한·러어업위원회 대책회의 개최
 - 일시/방식 : '22.1.24(월), 14:00 /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해수부 원산과, 수협, 업종별 위원장 / 해외협력본부장 외 2명
 - 내용 : 업종별 쿼터량 및 입어로 전년 수준 요청, 조업수역 확대 및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시 해상 격리 면제 요청
- 오징어어업관련 업무추진
- 가. 남서대서양 오징어채낚기 분담금 부과 알림(1.10 / 남서대서양출어선사)
 - 포클랜드-아르헨티나 EEZ 경계 인근 준법조업 당부
- 나. '22어기 포클랜드 입어로 케이블 송금 알림(1.14 / 포클랜드대방사)
- 다. 선박검사 관련 조치사항 및 개선요청사항 알림(1.14, 20.21 / 오징어채낚기위원회)
- 라. 포클랜드 주재원 항공권 변경(1.21 / 포클랜드 주재원)
 - 영국-포클랜드간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인천-런던간 항공편 변경
- 라. 포클랜드 주재원 항공권 변경(1.21 / 포클랜드 주재원)
 - 영국-포클랜드간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인천-런던간 항공편 변경
- 마. 포클랜드 선박검사 변경 일정 알림(1.25 / 포클랜드 주재원)
 - 영국-포클랜드간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선박검사 변경 일정 알림

바. 포클랜드 채낚기 어획동향(2.5 기준)

- 총 어획량 : 3,686톤(추정), 29척 조업

○ 지역수산물기구 업무추진

가.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업무추진

- 이행위원회 및 연례위원회 참석
 - 일시/방식 : '22.1.19~28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수과원, FMC, 동원산업, 정일산업 /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내용 : 오징어 육상 전채 의무화, 대왕오징어·전갱이 보존관리조치 개정조치, 전갱이 쿼터 전년 대비 15% 인상 (총쿼터 : 817,943톤, 한국 쿼터 : 11,540톤), 대왕오징어 조업노력량 제한조치 미채택

나. 북서대서양수산물기구(NAFO) 업무추진

- 북서대서양수산물기구 쿼터 전배 협정문 발송 (1.27/에스토니아어업협회)
 - 쿼터량 : 적어 169톤, 오징어 453톤, 전배금액 USD28,000
 - * EU 내부 행정절차로 2~3주 이내에 협정문 작성 완료 및 송금예정

다.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업무추진

- NPFC 전채 보존조치 초안 검토 및 의견수렴 알림 (2.4 / 북양·대구·꽁치·오징어위원회)

○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 관련 업무추진

가. 2022년 원거리해역대응 시범사업 현장협의회 참석

- 일시/방식 : '22.1.1, 10:3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해수부 운영지원과, 남해어업관리단, 한성기업 / 협회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내용 : 선박 점검 및 현장투입 실무자간 주요 확인 사항 논의, 준성호 관계자 및 남해어업관리단 간 필요사항 논의

나. 원거리해역 대응시범사업 공인인증서 발급 (1.10/나라장터)

다. 원거리대응 시범사업 민간위탁계약서 체결 (1.12/나라장터)

라. 원거리해역 대응시범사업 안전보건분야 지침 알림 (1.17/한성기업)

마. '22년도 원거리해역대응시범사업관련 통장개설 (1.21)

바. 2022년 원거리해역대응 시범사업 착수계 제출 (1.24 / 해수부)

사. 2022년 원거리해역대응 민간위탁사업비 시범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신청서 제출(1.25 / 해수부)

- 선급금 신청완료 및 민간어선 담당기관(한성기업) 집행조치 완료

아. 2022년 원거리해역대응 시범사업 민간어선 담당 기관 조치/협조요청사항 안내(1.26 / 한성기업)

○ 원양산업 관련회의 업무추진

- 2021년도 원양산업 관련 회의 개최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1.11 / 해수부)
- 2021년도 원양산업 관련 개최 회의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1.19 / 해수부)
- 2021년도 원양산업 관련 개최 회의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1.20 / 해수부)
- 2022년도 원양산업 관련 회의 개최 사업 1차 보조금 신청(1.26, 1.31 / 해수부)

○ 2022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 업무추진

- 2022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신청서 제출 (1.21 / 대체어장자원동향조사 대상선사)
 - 교부금액 : 척당 6,076천원

○ 2022년도 해외어장 업무추진

- 2022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수요조사 알림(2.4 / 전화원사)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78개사 570건(1.1~1.31) 계량
- 한성기업 “준성호” 출항식
 - 일시 : '22.1.24 11:00
 - 참석자 : 해수부 김태호 과장 등 10인, BPA 강준석 사장, 협회장 외 1명
 - 내용 : 2022년 원거리 대응 시범사업
- '22년도 부산권 냉동창고 향운노조 임금인상 및 부대근로조건 개선협의회 관련
 - 가. 9~12차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9차) '22.1.12, 13:30/ 부산지부 (10차) '22.1.17, 14:00/부산지부 (11차) : '22.1.19, 10:00/부산지부 (12차) : '22.1.24, 14:00/부산지부
 - 참석자 : (노측) 향운노조 7명 (사측) 원양협회 부산지부장 등 3명
 - 내용 : 국민연금 사측 부담금 3%→4.5% 인상, 의료보험 사측 부담금 2.2%→3.9% 인상 등 총 3.2% 인상 및 부대조건 강력 인상 요구
 - 나. 원양트롤업계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2.2.4, 14:00/부산지부 회의실
 - 참석자 : 코삭교역 정진욱 이사
 - 내용 : 다품종 선별비 40종류 이상 75%→100% 인상안 협의
- '22년도 부산수산물정책포럼 1차 임시이사회 참석
 - 일시 : '22.1.20, 14:00/공동어시장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부산지부장
 - 내용 : 결산 및 예산 편성
- 원양어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 및 설명회 참석
 - 일시 : '22.1.21, 13:00/원양부두
 - 참석자 : 이규선 원양산업과장, 이성재 사무관, 부산지부장
 - 내용 : 대해수산 309대화호 점검
-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연금+건강보험)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2.2.9, 11:00/ 원양프라자 3·4층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부산지부 이사)
 - 내용 :
 - (산재) '21.1월 산재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복지) '21.1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3개사 3척(북양트롤1, 참치연승2, 참치선망1)
 - 출항 : 3개사 3척(참치연승2, 참치선망1)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 <국제협상지원팀>
- 회의 참석
- 가. The 5th NPFC Planning and Development
 - 일시/장소 : '22.01.12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김정례 주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NPFC 전재 보존조치 개발 논의
- 나. 제9차 SPRFMO 이행위/재정위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2.01.18-22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김근령 사무관, 나일강 주무관, FMC, 원양협회, 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
 - 내용 : 국가별 이행 사항 보고서 검토, CMM 개정에 대한 논의 및 2022-23년 예산안 검토
- 다. 제10차 SPRFMO 연례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2.01.24-28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김근령 사무관, 나일강 주무관, 수과원, 수품원, FCM, 원양협회,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김수민 전문관
- 내용 : 이행위 보고서, 재정위 보고서 채택, 현 CMM 개정 논의 및 신규 CMM 채택 논의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 '22년 OFIS 유지보수 용역발주 준비
 -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 재검토(1.3~4)
 - 사전협의 신청서, 보안성 검토 신청서 작성 (1.3~4)
 - 유지보수 용역 관련 업무협의(1.4, 서면/유선)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 가. 명예해양수산물 활동보고서 OFIS 게재
- 나. 명예해양수산물 '21년도 종합보고서 제출 (1.18, 국제협력총괄과)
- 다. '21년도 4/4분기 실적보고 제출 (1.10, 국제협력총괄과)
- 라. '22년도 수시보고 및 시행지침 안내 (1.26, 명예해양수산물 9인)

○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 지원 사업

- '20년 키리바시 사업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 (1.28)
- '20년 연안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종합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1.28)
- 원양 핵심어장 어촌뉴딜 ODA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 '21.1.27, 해양수산부 중회의실
 - 참석자 : 농어촌공사, 해양수산부, 원양협회, 협력센터 등 16명
 - 주요내용 :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발표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 가. 사업 운영 관련
 - '21년도 4/4분기 실적보고 제출 (1.10, 국제협력총괄과)
 - '22년도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사업 시행 지침 통보 접수
 - '22년 사업계획서 제출(1.26, 국제협력총괄과)
 - '21년도 정산보고서 제출(1.26, 국제협력총괄과)
- 나. '21년도 협력센터 직원 성과평가회 개최
 - 일시/장소 : '22.1.12, 16:00 / 토즈마이스센터
 - 평가위원: 해양수산부, 해외수산협력센터, 원양산업협회(5인)
 - 내용: '21년도 직원 성과평가 결과 보고
- 다. 전문가 초청 교육 개최
 - 일시/장소 : '22.01.12 / 세종 마이스센터
 - 참석자 : 해수부 김준석 수산실장(초청강사) 등 해수부, 원양협회, 업계, 협력센터 등
 - 내용 : 한중 어업협정 체결 배경 및 협상 과정





통오징어짬뽕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손질한 통 오징어 1마리, 꽃게 1마리, 조개 1줄, 새우 2마리, 숙주 1줄, 대파 1대, 당근/4개, 양파 1/2개, 청경채 1개,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썬갓 2개, 고추기름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1작은술

<양념장>

고추기름 2큰술, 다진 생강1작은술, 다진마늘 1큰술, 굴소스 2큰술, 간장 3큰술,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치킨스톡 1개, 물 1L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양파, 당근은 채 썰고, 홍고추, 청고추는 어슷썰고 청경채는 반으로 썬다.
- ② 냄비에 고추기름을 두른 후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서 향을 낸다.
- ③ 2의 냄비에 청경채를 제외한 썰어놓은 1의 야채를 볶는다.
- ④ 3의 냄비에 꽃게, 조개, 새우를 넣고 볶는다.
- ⑤ 4의 냄비에 양념을 넣고 볶다가 물, 치킨스톡, 청경채를 넣어준다.
- ⑥ 5가 어느정도 끓으면 손질한 통오징어를 넣고 썬갓을 올려 완성한다.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1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관

가. 세네갈 2021년 부패인식 지수, 73위

- 1.25(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1년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 따르면 세네갈은 100점 만점에 43점을 받아 조사대상 180개국 중 73위를 차지.
- 2020년 세네갈 CPI 순위는 67위(45점)로, 지난해 대비 CPI 순위가 하락.

나. 관련국 소식

- 1.19(수) Adama Barrow 감비아 대통령 취임식 거행, 인프라·에너지 등 정책기조 유지 발표.
- 1.16 Ibrahim Boubacar Keita(IBK) 말리 전 대통령이 바마코에서 76세 나이로 별세.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378
	1.8kg	1,333
	1.5kg	1,197
황다랑어	10kg	2,032
	3.4kg	2,032
	1.8kg	1,333
눈다랑어	10kg	1,378
	3.4kg	1,378
	1.8kg	1,333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항	345 유로/MT	경유	'21.1.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관

가. 피지 코로나19 현황

- 피지 선박 입항 신청시 승선자·입항자 전원의 2차접종 완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입항 및 수속 가능.
- 상륙 희망자는 수속 후 별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반응이 나오면 상륙할 수 있음. 격리기간은 2박 3일.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00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851달러/MT	M.G.O	'22.2.10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연근해 및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연승선 조업은 날개다랑어 0.3~0.6톤, 황다랑어·눈다랑어 0.1~0.3톤 정도로 전월과 비슷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아메리칸사모아 총독실에서 1월27일 입국자 중 총 39명이 코로나19 양성 환자임을 발표함.
- 39명 중 33명은 입국자, 6명은 관리청 직원이며, 이와 함께 총독실 측은 공공건강 비상상황 발표.
- 아메리칸사모아 공공건강 비상상황 내용:
 - 현재 아메리칸사모아는 코드 블루를 지속. (지정된 장소에서 7일간 격리)
 - 아메리칸사모아 입국자들의 백신 의무화 연령을 16세 이상에서 5세 이상으로 변경.
 - 코드 옐로 발령 시 일반영업 시간을 05~18시, 일반 통금은 21~5시까지.
 - 코드 레드 발령 시 일반영업 시간은 05~16시이고, 항공, 항만 등 모든 출입국이 정지되며, 모든 일반 모임은 금지.
 - 코드 레드 발령 시, 보건청장은 코로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는 사람을 예고 없이 최장 15일까지 격리 가능.
 - 코드 레드시, 보건청장은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간주되는 사람을 사전예고 없이 최대 15일까지 격리 가능.
 - 어선 및 운반선 입항은 전월과 같음. (입항 전 선박 대리점을 통해 항만청으로부터 사전 입항 허가를 받아야 함)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조사일
Clipper, Oil	\$2.72(gallon)	'22.2.7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가나 해군 4척의 신형 전투함 도입 및 실전 배치 완료

- 가나 해군이 해양 석유 및 가스 시설을 포함한 해양 영역 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4척의 신형 전투함을 인수.
- Flex-fighter boats로 알려진 이 전투 경비함들은 가나의 해양 수역을 안전하게 하고 해적 등 해상 범법자들이 활동하기 두려워하는 해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
- 석유위원회의 Egbert Faibille 의장은Sekondi 시의 서부 지역 추장국 간의 회의에서 이 경비정들의 취득은 가나 해군이 해양 석유 시설과 기타 국가 자산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의제의 일부라고 설명.

나. 아비장 인근 해상에서 탱커선 해적 피랍사건 발생

- 서아프리카의 기니만에서 다시 해적에 의한 선박 피랍사건이 발생함. 사건은 기니만의 연안국인 코트디부아르 아비장항 남방 50 마일 해상에서 발생.
- 원양어선들을 상대로 해상에서 어선연료유를 공급 하던 4,000톤급 유류 운반 탱커선이 지난 현지시 1월 24일 오후 11시경 무장한 해적들에 의해 피랍되어 현금 및 화물이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
- 피랍된 후 탱커선은 해적모선이 대기 중인 60여 마일 남동쪽으로 강제 이동하여, 상당량의 화물과 금품을 탈취당한 후 선박과 선원은 풀려나고 해적은 그대로 도주.
- 해당 탱커선에는 무장경비원 2명이 승선 중이었으나 해적의 기습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짐작됨.



- 아찔했던 것은 한인 선주의 한 원양어선이 피랍 탱커선으로 부터 연료를 수급하기 위해 피랍 위치에 도착하여 피랍 탱커선을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는 것.
- 자칫 한인 선주의 원양어선도 같이 해적에게 화를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근래 가뜩이나 참치잡이 원양어선 경영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원양사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음.
- 현재 가나참치어업은 가다랑어 채낚기업계의 붕괴에 이어 FAD조업이 금지되는 3개월에 달하는 금어기로 인해 조업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상태인데, 여기서 행여 해적들에게 선박이나 선원들이 피랍되어 상해나 자산손실을 입는 일이 발생한다면, 원양선사의 존립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 다행히 올해 FAD금어기가 3월 13일 한으로 조정되어 약 15일간의 조업일 수를 회복하였고, 최근 가나 해군은 현대식 전투함 4척을 도입하여 해상에 배치함에 따라, 가나 Tema항과 Takoradi항의 인근15마일 내 해상은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해상으로 거듭나게 되었음.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800	
	10kg 하	1,440	
가다랑어	3.4kg 상	1,350	
	1.8kg 상	1,300	
	1.5kg 상	1,150	
	1.5kg 하	1,10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급유	810달러/kl	M.G.O	'22.1.31	
항만급유	860달러/kl	M.G.O	'22.1.31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관

가. 인도네시아 수산부문,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정책 변경

- 2014년 Susi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 이후 외국건조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모라토리움, 외국 자본의 어업부문투자 불허, 내국조업선에 대한 환경파괴어구 사용금지 등 수산자원보호 정책을 추진.
- 2019년 Joko Widodo 대통령의 2기 내각구성에서 Susi장관이 퇴임하고, 후임 장관 취임 이후 어업산업의 기업화, 외국인 투자 허용 등 Business 친화적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
- 2020년 12월 새로 해수부장관에 취임한 SAKTI WAHYU TRENGGONO 장관은 기업형 어업산업의 활성화로 조업수수료(어획수수료)를 거두어 국가 재정확충을 계획하고 있음.
- 배경에는 Susi장관 재임시에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었던, 기업친화적인 해양투자조정장관 Luhut Binsar Panjaitan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외국자본 투자기업(PMA), 어업분야 투자가능
 2. 해양수산부에서는 Tim Beauty Contest를 꾸려 투자의향 기업을 심사하여 적정한 기업을 선정
 3. 각 해역별, 어종별 정부가 정한 쿼터에 따라 어획계약
 4. 계약기간 2년
 5. 최소자산(회사) 2천억 루피아(땅, 건물제외)
 6. 조업선, 운반선은 인도네시아 선적
 7. 운반선 차터 경우 관련법에 따라 양륙항에 토지 사용계약 등이 필요



- 8. 계약기간 내 계획어획량을 채우지 못할시 처벌조항
- 9. 선원은 100% 인도네시아인, 이중 최대 30%는 지역어민 고용, 어로장은 외국인 가능
- 10. 사용어구는 친환경적어구에 한함.

1. Fishing Industry Zone ①

WPPNRI 711 = Karimata 해협해역(남지나해 남부), Natuna해, 북Natuna해

2. Fising Industry Zone ②

WPPNRI 716 = Sulawesi해, Halmahera섬 북쪽해역

WPPNRI 717 = Cendrawasih만 해역, 태평양, 태평양 외해

3. Fishing Industry Zone ③

WPPNRI 715 = Tomini만, Maluku해, Halmahera해, Seram해, Berau만

WPPNRI 718 = Aru해, Arafura해, Timor해 동부

4. Fishing Industry Zone ④

WPPNRI 572 = Sunda해협, 인도양 Sumatra 서쪽해역 및 외해

WPPNRI 573 = 인도양, 자바섬 남쪽해역, Nusa Tenggara 남쪽 해역, Sawu해, Timor해 서쪽해역, 인도양 외해

※ 참고로 WPPNRI 711, WPPNRI 718해역은 저서어족 어획이 가능/ WPPNRI 717, WPPNRI 572, WPPNRI 573해역은 Tuna연승어업과 선망어업이 가능

나. 인도네시아 신설 모 수산회사에서 합작 사업 업체 모집

- 관심있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 M. Phone : + 62-812-968-9797 (이재원 명예해양수산물), WHATS APP 및 카카오톡 가능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신임 수산청 Acting MD 와 미팅

- 2월 6일 신임 임시 수산청장과의 미팅을 통해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짐.
- 전임 청장 아래에서 흐트러진 수산청의 업무 및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수산업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임.
- 현재는 3개월 임시 수산청장으로 임명, 현지 실정상 7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정식 임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임시 청장으로 보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임시 수산청장의 이름은 Mr. Justin Ilakini이며, 이전의 보직은 PSID(Province Support and Industry Development) 의 Executive Manager 였음.

나. 우리 어선의 인명 구조

- 우리 어선(동원: FV. Teraaka)이 조업 중 솔로몬 아일랜드 근해에서 표류중인 PNG 바나나보트를 구조, 동건 관련하여 본인은 현지 수산청과 항만청에 연락을 취했으며, 한국 대사관 강우림 서기관의 협조로 현지인을 PNG로 송환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	단가	기타
황다랑어	3달러/kg	베트남 수출(20kg 이상/pcs, FOB)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0.8905달러/리터	Diesel	'22.2.7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관 성명 가나다순〉



공급 개선으로 방콕 가다랑어 가격 하락

1,600 달러 수준

현재 방콕 가다랑어(1.8kg 이상) 현물 가격은 톤당 1,600 달러로 1월 중순 1,750 달러 대비 약 9% 하락했다.

향후 거래에 중계업자들은 톤당 1,550~1,575 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양 선망선단이 어획한 참치를 방콕 시장에 판매하려고 한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방콕의 주요 캔 가공업자는 지난달에 비해 더 많은 가다랑어가 하역부두에 도착하고 있으며 수요의 경우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서부태평양 어획 관련 자료에 따르면 12월 선망선 어획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요 PNA 항구, 특히 마당, 라바울, 마주로와 같은 서부 지역에서 전채

량이 많아졌다. 12월 어획물이 현재 방콕에서 하역 중이며 이러한 공급 개선으로 가다랑어 가격이 하락 반전했다.

한편, 선박용 경유(MGO) 가격 상승에 따른 운영비 상승으로 선주들은 가다랑어 가격 하락에 저항할 것이다. 1톤의 참치를 어획하기 위해 소모되는 MGO 비용이 1월 초에 비해 30 달러 가까이 증가했다.

소식통은 현재 높은 수준의 운임에도 불구하고 참치 캔 주문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방콕에서 미국으로 가는 운임이 20 피트 컨테이너 당 8,000~13,000 달러 수준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2일자

키리바시, 첫 코로나19 봉쇄 실시

22일부터 48시간 동안 전면 봉쇄

2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키리바시는 지난 22일부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4시간 통행 금지 등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키리바시 시민들의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됐고 병원, 경찰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문을 닫았다.

이는 국제선 여객기의 한 승객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탓이다. 지난주 피지에서 36명의 사람들이 여객기를 통해 키리바시에 들어왔는데 이들

중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검역소 경비원 등 4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다. 키리바시는 피지발 여객기와 관련해 승객 등 54명을 격리 조치했다.

키리바시에서 마지막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 선박을 통해 입국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2명이 이전까지 키리바시의 총 누적 확진자였다.

현재 키리바시에서는 전체 인구의 90%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2차 접종은 53%가 맞은 상태다.

* 기사 출처: 매일경제, 2022년 1월 23일자



태국 참치캔 수출량 5년간 최저

미국 수출 타격 가장 커

태국 관세청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태국 참치캔 수출량은 44만 5,231톤으로 2020년에 비해 20% 감소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CFR 기준 수출 가격은 톤당 평균 3,894 달러로 지난해 대비 1% 상승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2021년 미국 수출량은 8만 2,226톤으로 2020년 13만 787톤보다 4만 8,561톤(20피트 컨테이너 기준 2,943대 분) 감소했다.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19년보다 약 2만 6,000톤을 더 수출해 2021년 감소가 설명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수출량은 9만 8,971톤으로 2021년 보다 많았다.

이집트 수출량은 2020년 대비 28%, 1만 5,405톤 증가한 7만 1,168톤으로 미국 수출량에 근접했다.

이집트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물량을 기록한 호주 수

출량은 2020년 대비 10%, 3,595톤 감소한 3만 2,989톤을 기록했다. 태국 제품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호주 수출량이 3년 연속 감소했다. 4번째로 많은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13%, 4,439톤 감소한 3만 271톤이다.

중동국가로의 수출도 감소했다. 2020년 대비 리비아 수출량은 42%, 사우디아라비아는 38% 감소했다.

페루로의 수출량은 1만 800톤으로 45% 감소했다.

평균 수출 가격으로 보면 일본이 톤당 5,028 달러로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고 파푸아뉴기니가 톤당 1,671 달러로 가장 낮다. 파푸아뉴기니 수출 가격이 낮은 이유는 파푸아뉴기니 국민들이 가공 후 남는 부분인 검은 살코기 부위(black meat)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26일자

PNG, 어업 복합단지 건설 계획 추진

4~5월 건설 시작할 예정

파푸아뉴기니 Morobe 지방 Lae지역의 주요 항구인 Voco Point항 내 수산 복합단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 계획은 2021~2030 국가전략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목표는 수산 복합단지를 Morobe와 Oro, Manus, East, and West New Britain과 같은 인접 지역의 어업 그룹을 위한 주요 상업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산 복합단지 조성에는 하역, 어류 판매, 가공·유통 시설 등이 포함될 것이다.

수산 복합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은 1억 5백만 키나(3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당국은 복합단지 건설이 올해 4월이나 5월에 시작되어 18개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15년 이상 진행되지 못했던 가장 중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인 태평양 해양산업지구(PMIZ) 프로젝트의 재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20일자



태국, 2021년에 가다랑어 과매수? 참치캔 수출 20% 감소, 원어 수입 6% 감소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태국의 냉동 참치 원어 수입량은 66만 1,970톤으로 2020년 대비 6% 감소했다. 2021년 태국의 참치캔 수출량이 2020년 대비 20% 감소하며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어 수입량 감소 수준은 생각보다 낮다.

2021년 4분기 원어 수입량은 12만 2,071톤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재기로 수입량이 예외적으로 많았던 2020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다. 일부 캔 가공업자들이 2분기 또는 3분기에서 이월된 매우 높은 수준의 원어 재고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4분기 수입량이 감소했다. 원어 수입이 감소한 원인 중 다른 한 가지는 높은 운임으로 미국 수입업체들이 운임이 감소할 때까지 참치캔 주문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보면 2021년에 대만 선단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전체의 19%(11만 8,613톤)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지만 2020년 대비 4% 감소했다.

마이크로네시아 국적 선단으로부터의 수입량은 69% 증가하며 11만 1,907톤을 기록했다. 이는 많은 선망선들이 마이크로네시아로 국적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22척의 선망선이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나우루와 같은 국가로 국적을 변경했다.

이 외 나우루 6만 7,950톤(3% 증가), 한국 6만 6,439톤(8% 증가), 키리바시 4만 3,616톤(13% 감소), 몰디브 4만 2,946톤(8% 감소), 일본 4만 1,796톤(1% 증가), 바누아투 4만 658톤(16% 감소), 마셜 제도 3만 1,381톤(12% 증가)이었다.

톤당 평균 수입 가격은 안정적이었다. 마이크로네시아와 한국의 톤당 평균 수입 가격은 각각 1,390, 1,366 달러이다. 이에 반해, 날개다랑어 비중이 이들보다 높은 대만과 일본은 1,608, 1,716 달러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4일자

Pirou사, 세이셸에 조선 기지 건립 Mahé섬, Ile du Port에

프랑스 조선사 Pirou가 인도양 사업 확장을 위해 세이셸 Mahé섬에 기지를 세운다.

Pirou사는 Pirou Seychelles Ltd를 설립하기 위해 세이셸 토목 및 항만 건설 분야 선두 기업인 United Concrete Products(UCPS)와 협력한다.

조선 기지는 Ile du Port에 있는 세이셸항만청(Seychelles Port Authority) 조선공학센터(Marine Engineering Center) 내에 세워질 예정으로 참치 선망선 하역 부두와 매우 가깝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3일자



중서부태평양 12월 가다랑어 어획량 소폭 회복

아직 어려운 상황

지난해 12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참치 어획량은 11월에 비해 약 1만 4,000톤 증가해 10만톤을 조금 상회했다. 9월 최저 수준에 비해 증가했지만 2021년 초 또는 2020년 12월 어획량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다랑어 어획량이 11월 대비 1만 7,000톤 증가한 7만 214톤을 기록했다. 9월에 기록한 3만 8,704톤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했다.

대형 황다랑어 어획량도 증가했다. 황다랑어 전체 어획량은 2만 6,023톤이다. 일일 어획량은 7만 5,000톤으로 지난 2년간 2번째로 높았다.

소형 황다랑어 어획량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12월 PNA 수역 선박조업일수제도(VDS) 사용 일수는 3,031일로 11월에 비해 약간 감소했으며 2010년 이후 12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조업 상황이 좋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조업 활동 상황을 보면 파푸아뉴기니, 마셜 제도와 같은 서부 지역에서 약간 더 많았던 가운데 키리바시·나우루가 증가, 마이크로네시아·솔로몬제도가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어획량 분포가 최근 몇 개월에 비해 지역적으로 더 광범위 해졌음에도 불구하고 34%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어획되었다.

예비 정보에 따르면 1월에 조업 노력이 동쪽으로(키리바시, 공해 등) 이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일 어획량은 마셜제도가 60톤으로 가장 많았고 나우루가 40톤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PNA 어장에서 일일 어획량이 개선되었고 투발루, 마이크로네시아, 토켈라우만 지난달 대비 감소했다. 공해 상 일일 어획량은 올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28일

Tri Marine, 태평양 참치 연승 어업 MSC 인증 시도

대만, 바누아투 연승선 열대성 다랑어 어업

Tri Marine International사는 태평양 참치 연승 어업에 대한 MSC 인증 평가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해당 어업에 대한 의견통지보고서 초안(ACDR, 총 6단계 중 2단계 초기 보고서)이 이번 주 MSC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다. 적합성평가기관(CAB)은 SCS Global Services이다.

의견통지보고서 초안에는 현재 Tri Marine이 보유한 연승선 또는 Tri Marine에 제품을 판매하는 연승선에 대해 9개의 평가단위(UoA)가 있다고 명

시되어 있다.

평가단위 중 4개는 태평양 도서국 EEZ 또는 공해에서 조업하는 대만 국적 연승선으로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어업이다. 동 선박들은 동부태평양 황다랑어 어업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으려 한다. 나머지 4개는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바누아투 국적선으로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어업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4일자



日 냉동 눈다랑어, 가격 하락

12월 단가 kg당 956 엔으로 하락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참치류의 2021년 12월 수입 실적은 선어·냉장 547톤(지난해 동월 대비 31% 감소), 10억 1,600만 엔(16% 감소), 냉동 1만 7,778톤(25% 증가), 246억 1,200만 엔(73% 증가), 가공품 4,339톤(19% 증가), 27억 600만 엔(27% 증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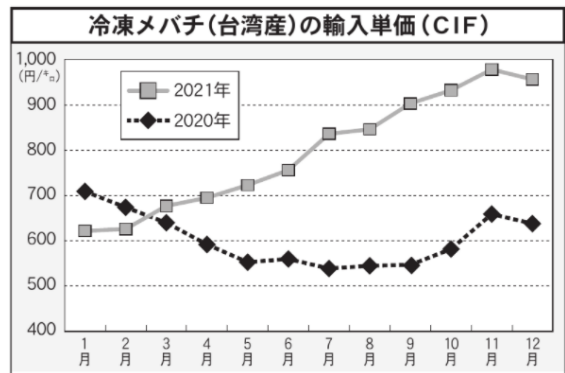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12월 수입량은 4,828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11월 대비 1,828톤 증가했다. 이 중 대만산이 2,249톤(11월 대비 838톤 증가), 중국산이 702톤(449톤 증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연말 수요 급등 대비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로, 이후 운반선 입항이 감소되어 공급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kg당 CIF 단가는 상승세가 멈췄다. 지난해 1월 kg당 622 엔을 기록한 후 상승세가 계속되어 지난

해 11월 kg당 978 엔까지 상승했으나, 12월 단가는 kg당 956 엔(50% 상승)으로 하락했다.

〈일본 냉동 눈다랑어(대만산) 수입 단가(CIF)〉

단위: 엔/kg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2월 7일자

日 도요스시장 2021년 눈다랑어 상장 20% 감소

중간가격 kg당 1,153 엔

일본 도요스시장의 2021년 냉동 눈다랑어 대형(40kg 이상) 상장 마릿수는 약 12만 3,700마리로, 지난해 대비 20%나 급감했다. 10년 전인 2012년 상장 마릿수(32만 7,200마리)와 비교하면 약 62%나 감소했다. COVID-19 긴급사태 선언 및 해외 선단의 가동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격의 경우, 2021년 1월 중간가격은 kg당 833

엔이었으나, 2월 829 엔으로 저점에 도달한 후 반등해 12월 가격은 2월 대비 39%나 상승한 1,153 엔을 기록했다. 해당 품목의 중간가격이 1,100 엔을 넘어선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현재는 고가품 가격이 큰 변화가 없으나 저가품 가격은 900 엔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1월 14일자



日 재무성, '21년 12월 참치 수입 통계 발표

'21년 냉동참치 총 17만 7,193톤 수입

(단위: 톤)

어종·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날개다랑어	한국	37	-	53	35	113	27	45	49	9	-	4	50	422
	대만	355	-	130	688	-	64	335	1307	1185	1699	1606	574	7,943
	바누아투	721	4	185	894	242	6	-	2	1	19	267	1635	3,976
	기타	81	6	21	52	9	36	290	938	402	105	592	104	2,636
	소계	1194	10	389	1670	428	70	670	2295	1597	1824	2469	2363	14,979
황다랑어	한국	266	318	309	380	458	412	410	455	267	318	119	282	3,994
	중국	321	205	655	253	326	254	451	770	186	420	129	383	4,353
	대만	844	1211	1531	1702	1304	1102	1535	1143	1253	742	1214	1281	14,862
	필리핀	-	19	150	198	171	204	114	22	18	3	19	148	1,066
	인니	-	21	33	7	15	-	-	-	-	-	-	-	76
	미국	-	17	-	12	-	31	3	-	-	-	-	-	63
	바누아투	128	106	114	211	129	124	283	178	133	70	129	130	1,735
	피지	11	27	17	112	31	48	27	13	65	25	-	57	433
	카리비시	43	33	32	31	202	291	248	58	124	26	8	6	1,102
	마셜	104	-	54	-	25	-	257	189	830	303	-	25	1,787
기타	1286	1440	1236	569	625	1003	969	529	701	911	564	425	10,258	
소계	3003	3397	4130	3477	3286	3469	4296	3357	3577	2816	2183	2737	39,728	
눈다랑어	한국	85	32	308	158	168	296	352	110	73	36	55	90	1,763
	중국	587	271	1125	573	327	549	918	1216	632	469	252	702	7,621
	대만	1509	2427	2661	2627	1909	1487	2606	1903	1509	1602	1411	2249	23,900
	기타	469	1123	826	376	460	292	460	150	297	247	424	691	5,815
	소계	156	319	510	576	328	55	48	117	149	174	93	346	2,871
남방참다랑어	한국	145	63	59	99	22	95	113	63	114	77	107	92	1,049
	대만	2951	4236	5489	4409	3212	2774	4496	3560	2773	2605	2343	4171	43,019
	호주	354	-	-	-	-	40	-	-	-	-	156	485	1,035
	기타	56	32	50	23	2	5	1	24	51	143	310	348	1,045
	소계	-	-	-	-	-	-	715	1900	2863	452	1204	-	7,134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2월 7일자



日, 국제 경기 회복으로 참다랑어 수급난

해외 수요 회복으로 참다랑어류 반입 감소

2021년 COVID-19 팬데믹 이후 경제 활동이 재개 되면서, 일본의 참다랑어와 남방참다랑어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이후 북미·EU 등지의 수요가 상승하면서 일본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선어의 경우, 9월 통관된 미국산 대서양 참다랑어는 47톤(40% 감소)으로 반감했다. 유럽산 남방참다랑어

는 81% 감소한 8톤에 불과했다.

멕시코산 양식 참다랑어의 경우 6월부터 지난해 대비 급감하기 시작해, 9월에는 33% 감소한 121톤에 그쳤다. 12월 도요스시장의 kg당 단가는 29% 상승한 2,700 엔을 기록했고, 거래량은 95% 감소한 18마리에 그쳤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1월 13일자

日 최대 초밥 체인, 세포 배양 수산 회사와 제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급망 솔루션 개발에 주력

‘스시로’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일본 최대의 다국적 초밥 체인 기업 Food & Life Companies(F&LC)사와 미국에 기반을 둔 세포 배양 수산물 생산업체 BlueNalu가 토로(참다랑어 뱃살) 대체품 개발을 위해 제휴했다.

해당 제휴는 참다랑어 및 기타 초밥 제품을 위한 공급망 솔루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측은 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 협력하고 규제 프

레이워크를 지원하여 일본에서 BlueNalu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세포 배양 ‘토로(참다랑어 뱃살)’의 초기 상용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일본은 전 세계 참다랑어 공급량의 80%를 소비하고 있으며,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1월 26일자

日, '21년 11월 2인 이상 세대 참치 지출 발표

가구당 약 401 엔·140g 소비

일본 재무성 통계국이 2021년 11월 가계 조사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 2인 이상 세대의 '21년 11월 참치 지출 내역은 금액 기준 401 엔, 수량 기준 140g을 기록했다. 금액과 수량 모두 전

월(422 엔, 155g) 및 전년 동기(414 엔, 163g) 대비 감소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1월 13일자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1,331 달러

인도양 선망선단 조업 재개

인도양 선망선단은 2021년 황다랑어 어획량이 쿼터에 도달해 어업 활동이 제한된 이후 최근 다시 조업을 시작했다. 가다랑어 가격은 어획량이 예년 이맘때와 일치하지 않지만 참치캔 가공업자의 수요가 낮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세이셸 가다랑어(1.8kg 이상) 가격은 톤당 1,180 유로(1,331 달러)로 방콕 1,600 달러, 만타 1,725 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만타와 약 400 달러 차이로 운임을 지불하더라도 세이셸에서 만타로 운송하는 것이 매력적인 방

안이 되었다.

현재 선망선단은 몰디브 남쪽 공해에서 조업 중이며 이맘때 참치 이동 패턴에 맞춰 세이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황다랑어(10kg 이상) 현물 가격은 여전히 톤당 2,100 유로(2,374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스페인·이탈리아 어선에서 어획된 황다랑어의 경우 현재 2,550~2,600 유로(2,883~2,940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3일자



IOTC, 세이셸 참치 쿼터 감축 조치

세이셸 EEZ 내 남획 원인

인도양참치위원회(IOTC)가 세이셸 EEZ 내의 남획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올해 세이셸의 황다랑어 쿼터를 감축했다.

Roy Clarisse 세이셸 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IOTC 측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이의제기는 현재 보류 중이다.

IOTC는 결의안 21/01호에 따라 2022년 세이셸

황다랑어 쿼터를 3만 5,781톤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8,331톤 감소한 수치이다.

Undercurrent News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세이셸이 자국 EEZ 내 IUU 조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1월 31일자



만타 가다랑어 가격 1,725 달러로 상승

수요 증가, 공급 예상보다 적어

만타 가다랑어(1.8kg 이상) 현물 가격은 현재 1,725 달러로 약 2주전 조사된 1,650 달러에 비해 약 4.5% 상승했다. 현재 가격은 2020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수요 증가와 공급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남미 항구에서 가다랑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EU 어선이 어획한 가다랑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EU 선박에서 잡은 어획물을 이용한 가공품은 EU 시장에 면세로 수출 가능).

현재 금어기(veda)가 종료된 지 2주가 지나 모든 선

망선들이 조업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예상보다 어획량이 적었다.

흥미롭게도 일반적으로 동부태평양에 더 많은 어획량을 유발하는 라니냐 현상이 현재 활성화 되고 있지만 생산은 예상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라니냐가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어획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 몇 주 동안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1일자

멕시코-에콰도르 FTA 협상에서 참치 원산지 이견

멕시코, 에콰도르에 원산지 기준 열어줄 경우 위험

멕시코 언론사 OpporTimes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에콰도르 FTA 협상에서 멕시코가 참치캔과 관련해 에콰도르 국적 어선이 자국에서 어획하고 에콰도르 캔 가공공장에서 가공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에콰도르는 타 국적의 선단과 운반선에서 하역된 참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기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에콰도르가 원산지 기준에 해당되는 참치의 전량을 주요 시장인 EU에 면세 혜택을 제공받고 수출하기 때문이다. 만일 멕시코가

참치 원산지 기준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에콰도르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유럽에 수출할 참치가 부족해지게 된다.

멕시코인들은 자국 참치 산업이 이미 번성하고 있어 에콰도르 제품이 시장에 넘쳐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멕시코 항구에 하역하는 중서부태평양 어획물 운송업체는 에콰도르에도 하역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낮은 생산 비용을 고려할 때 원산지 기준이 개방된다면 멕시코 가공업체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4일자



가다랑어 수는 문제없다.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특히 수는 함량 낮아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가다랑어의 수는 함량은 모든 참치 종 중에서 특히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공동체(SPC)는 최근 수산업 뉴스레터에 '참치는 바다의 수은 오염 지도 작성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프랑스 연구소 IRD, 브르타뉴 옥씨덩탈 대학(Université Bretagne Occidentale), SPC 과학자들이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했다.

이 연구에서 총 650마리의 가다랑어 표본(평균 체장 60cm)이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권고하는 수은 건강 기준치 1kg당 1mg을 초과하는 사례는 없었다.

가다랑어는 성장 주기가 빠르며 수심 100m 이상에서 유영한다. 참치가 먹이를 먹는 수심과 해수면 온도는 메틸수은의 함량에 영향을 미친다. 날개다랑어와 눈다랑어는 먹이를 찾기 위해 매일 수심 500m 아래로 잠수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과학자 중 일부가 2019년에 중

서부태평양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들은 가장 크고 가장 깊이 잠수하는 어류의 수은 함량이 가장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별 어종별로는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표본의 수은 함량이 가장 낮았다.

북서태평양(NWPO, 일본 및 중국 인근) 가다랑어 수은 함량은 중북부(CNPO)·동부태평양(EPO)보다 1.5~2배 높았고 중서부태평양(WCPO)·남서태평양(SWPO)보다 4~5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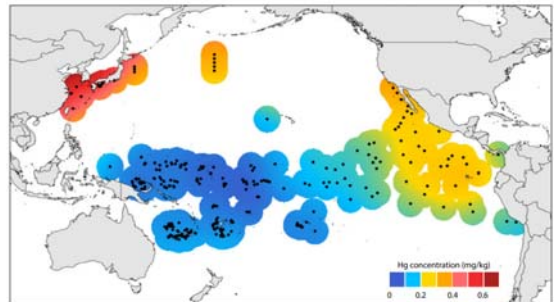


Figure 2. Spatial distribution of mercury concentrations (mg/kg, fresh tissue) in skipjack for a standard size of 60 cm. Black dots show the catch locations of the tested fish.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8일자

스페인군, 기니만에 순찰선 파견

참치어선 보호 위해

스페인군이 기니만 참치어선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순찰선 Serviola호를 파견했다.

Serviola호는 오는 2월 25일 기니만으로 출항해 6월까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EU와 스페인 어업자들이 유럽위원회에 기니만에서 해적공격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개입할 것을 요청한 후 취해졌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3일자



참치캔에서 빼낸 기름, 재사용해야 하는 이유 오메가3, 비타민D 풍부

이탈리아 어류통조림가공협회(Italian Association of Canned Fish Processors)가 의뢰하고 이탈리아 파르마에 위치한 통조림식품산업실험센터(Experimental Center for the Canned Food Industry)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참치캔 기름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풍부하다.

원래 이들은 식용 기름이 들어있는 참치캔을 13개월 동안 섭씨 4도, 20도, 37도의 온도에서 유지한 후 기름의 산화, 향, 맛, 색상에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 실험 결과 유의미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방산, 비타민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연구원들은 실험 이후 참치캔 기름에 지방산,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들은 연구에서 참치 기름 10g에 지방산 일일 권장 섭취량의 10%, 비타민D 일일 권장 섭취량의 5%가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에서는 참치캔 기름을 유리병에 보관할 것을 권장했으며 쉽게 상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들은 참치 기름의 경우 어류가 포함된 요리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25일자

식물성 기름 가격 소폭 하락 2020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품 가격은 1년 동안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1년 12월에 소폭 하락했다. 가장 큰 요인은 식물성 기름과 설탕의 가격 하락이다.

2021년 12월 평균 FAO 세계식품가격지수(FFPI)는 133.7포인트로 11월보다 0.9% 하락했지만 2020년 12월보다 23.1% 상승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FFPI는 5가지 식품군(식물성 기름, 곡물류, 육류, 유제품, 설탕) 지수의 평균으로 산출된다.

식물성 기름의 경우 2021년 12월 178.5포인트로 2021년 후반 최고치보다 3.3% 하락했다. 팜유

와 해바라기유는 코로나19 지속 확산 우려 속에 수입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대두유는 인도의 수입 수요 강화, 유채씨유는 세계 공급량 감소 장기화로 인해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1월 13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해바라기와 대두의 가치는 12월 이후 약간의 변동만 있었다. 현재 해바라기는 톤당 1,365 달러, 대두는 톤당 1,419 달러이다. 2020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해바라기 가격은 2021년 동기 대비 14% 상승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13일자



싱가포르 MGO 765.5 달러, 최고 수준

브렌트유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

7월 18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87.6 달러로 201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서부텍사스유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4.35 달러까지 올랐다.

시장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원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분석이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면서 당분간은 브렌트유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성도 국제 유가의 강세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공급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PEC+국가들은 최근에서야 감산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1월 초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70만 배럴로 떨어진 것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미국과 중국은 비축유 수백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약속했다. 방출 시기는 1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춘제 무렵이 될 것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며 그 양은 알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말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세계 평균 MGO 가격은 톤당 795.5 달러로 여선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느 때보다 운영비가 많이 소모된다. 1월 17일 기준 싱가포르 MGO 가격은 지난달 대비 10% 가까이 오른 톤당 756.5 달러이다. 현재 선망선이 참치 1톤을 여획하는데 연료비가 거의 50 달러 더 든다.

다행히 현재 방콕 냉동 가다랑어(1.8kg 이상)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료비 상승이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18일자

수산물 통조림 시장 10년 후 2배 성장 예상

수요 증가, 새로운 시장 성장

시장조사기관 Future Market Insights(FM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2년까지 수산물 통조림 시장 규모는 현재 368억 달러에서 223% 성장한 82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성장률을 보면 8.3%이다.

FMI는 수산물 수요 증가와 새로운 시장 기회로 인해 이러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이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핵심 시장으로 부상했다.

북미와 유럽은 수산물 통조림 주요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28일자



EU 내 참치캔 비릇 수산물 VAT 감면될까?

EC의 VAT 규정 변경 동의로 3월부터 본격 논의

유럽에서 참치캔과 다른 수산물들의 부가가치세(VAT)가 '0'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EC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VAT 세율을 관리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는데 동의했다. 변경 사항 중에는 회원국이 VAT를 낮게 적용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목록의 포함되어 있다. 이는 EU 회원국들이 기본적 필요 보장으로 간주되는 특정 목록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VAT를 처음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AT 규정 변경은 올해 3월에 논의될 예정이다. EU 회원국은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건강식품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환경과 EU의 목표에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내년 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Paolo Gentiloni

경제위원장은 Francisco Millán Mon 유럽의회의원(MEP)에게 이 주제에 대해 서한을 보냈다. Gentiloni 경제위원장은 어류와 조개류를 포함한 기초식품의 경우 필수로 여겨진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VAT를 낮게 적용할 수 있는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세 품목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각 회원국이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럽인의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참치캔이 목록에 포함될 수도 있다.

수산물 VAT가 낮춰진다면 참치를 포함한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스페인은 어업·수산물 가공국으로 수산물 VAT 감세 시 가장 큰 수혜 국가가 될 것이다. 수산물 VAT는 몰타·아일랜드 '0%', 슬로베니아 '22%',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10%(자연산)'로 다양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17일자

국제채낚기재단, 조달 투명성 플랫폼 시작

회원사 관련 어종·어구·어업·회사 등 검색 가능

국제채낚기재단(IPNLF)은 조달 투명성 플랫폼(STP)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는 STP 홈페이지에서 참치가 어떤 어업으로 어획되었는지, 어업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볼 수 있다. 어종, 어구, 어업, 상품, 업체별 검색이 가능하다.

메인 화면에서 참치종(가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참다랑어)을 선택하면 종에 대한 설명, 현재 자원 상태, 지속가능성 문제, 특정

참치와 관련된 어장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어구를 선택하면 채낚기, 손낚시, 선망과 관련된 자세한 자료가 나온다.

이외에도 어업 페이지에는 어선, 어선의 어창 용적, 대상 어종, 어구, 추적가능성, 어업 협회 등의 정보를 보여준다. 회사 페이지에서는 특정 참치 품목을 살펴보고 어장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20일자



中 저장성, 참치 기업에 조세 지원 정책 계속 세금 감면·환급 등으로 산업 육성

저장성은 중국 참치산업의 중심지이다. 저장성 세무국은 재정부서와 함께 최근 참치 부문의 공급망을 미래로 이끌 10가지 재정 및 조세 지원 정책을 공식화했다. 정책 목표는 현대적 대규모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 저장성의 세금 우대 정책으로 초저온 원양어선(참치, 오징어 포함) 척수는 620척에 달한다. 저장성에 양륙되는 참치는 전체 중국 양륙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저장 국립해양어업기지 면적은 5.98km²로 원양어업에 중점을 둔 복합단지이다. 중앙 어항, 3개의 특화 부두, 2만 7,000톤의 어류를 보관할 수 있는 대규모 단일 냉동 창고가 있다. 세무국에 따르면 어업기지 내 Ocean Family사의 해양식품가공냉동물류 프로젝트가 오는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Ocean Family의 Cai Lino 차장은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Ocean Family가 세계 최대의 완전 추적 가능한 초저온냉동

고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Ocean Family가 지난 2년간 1,116만 위안(182만 달러)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덧붙였다.

연간 어획량 2만 5,000톤으로 중서부태평양 참치 연승선 30척 등 다양한 어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Ping Tai Rong Oceanic Fishery Group은 2020년에 총 2,461만 위안(387만 달러)에 달하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중국 참치캔 부문도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Zhejiang Sunac Food Industry사는 세금 감면, 공제, 환급을 통해 2021년부터 총 1,947만 위안(2,663만 달러)을 지원 받아 1억 6,900만 위안(2,663만 달러) 상당의 참치캔을 수출했다.

저장성 푸퉁구에 위치한 11개의 소규모 참치가공회사도 각각 연간 약 700만 위안(110만 달러)의 세금 우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19일자

최초의 SI 위성 부표 출시 상업용 어류 구분 탐지, 정확한 양 계산 가능

해양 기술 기기의 개발 및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Marine Instruments는 최초로 인공지능 탑재 참치 어업용 위성 부표인 M3iGO를 출시했다. 이 장치는 이미 3대양에서 테스트되었으며 참치와 다른 종을 구별할 수 있다.

M3iGO는 부표 아래에 있는 어류를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용 어류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필요시 사용 가능하도록 항상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충분한 충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25일자



아이슬란드, EEZ 내 참다랑어 어업 허가 추진

해외 어선 임대법 입법 추진

아이슬란드 수산부가 어업법 개정과 함께 EEZ 내 참다랑어 어업권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이슬란드는 1990~2000년대 중반까지 자국 EEZ 내 참다랑어 어업을 일시적으로 허가한 적이 있다. 다수의 일본 연승선이 이 시기에 입어 허가를 받고 조업했다. 아이슬란드 내에서도 참다랑어 조업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일부에서 참다랑어 연승선 및 가공 시설 건조, 건설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아이슬란드 수산부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ICCAT에서 할당 받은 참다랑어 쿼터를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다. 수산부 측은 해당 어업권에 수요가 충분하며, 아이슬란드 선단이 이러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어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 참다랑어 어업 부활에는 어업 경험 부족과 어구, 장비 부족 등 여러 난관이 있다.

수산부 대변인에 따르면, 참다랑어 어업의 발전 장려와 참다랑어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이슬란드 사업자들이 타국으로부터 적절한 어구를 갖춘 어선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Svandís Svavarsdóttir 수산부 장관은 아이슬란드 EEZ 내 해외 선단의 활동 및 외국인 소유 수산 벤처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변경하여 아이슬란드 기업들이 해외 어선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2년 1월 12일자

2021년 베트남 참치 수출 회복

미국 수출 회복, EU 수출 회복 추세

베트남 수산물수출가공협회(VASEP)에 따르면 2021년에 베트남 참치 수출량은 크게 증가했다.

총 선적 금액은 7억 5,700만 달러로 2020년 6억 4,800만 달러에 비해 17% 증가했다. 참치캔을 제외한 모든 참치 부문의 무역금액이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베트남 참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2020년에 약간 감소한 이후 2021년에 회복했다.

EU로의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서비스 부문의 침체로 특히 2021년 첫 4개월 동안 타격을 받았고 지속된 높은 운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2021년 내내 EU-베트남 FTA로 회복 추세를 보였다.

멕시코, 이스라엘, 칠레, 필리핀은 베트남 참치 제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 여겨진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12일자



아르헨티나, 중국 오징어 선단 감시 순찰선 배치

해상초계함 인수·사령부 창설 등 감시 능력 강화

아르헨티나 해군이 자국 EEZ 인근 국제 어선들을 감시하기 위해 최신 해상초계함(OPV)인 P-51와 P-52를 투입했다.

이 두 선박은 아르헨티나 해군 해양순찰대(DVPM) 소속으로, 해군 항공대에 속한 B-200 항공기와 함께 남대서양 공해를 향해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감시했다.

행정체계에서도 발전이 있었다. 2021년 2월 말, 아르헨티나 국방부는 (아르헨티나의) 해상과 하천 지역을 순찰하고 통제하기 위해 합동 해양사령부(CCM)를 창설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CCM이 EEZ 인근을 항해하는 국제어선단 감시 등 해상작전을 지휘했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 해상·공중 전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해 12

월 신규 남극 사업용 쇄빙선 신조 계획을 발표했으며, 같은 달 국방부는 SH-3H 헬기 2대를 도입해 남부지역·남극작전 중 수색구조 등의 능력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해군은 아직 운용 중인 잠수함이 없고, 신규 해상초계함을 제외하면 현대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선단의 조업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지속적 장거리 순찰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아르헨티나는 IUU 어업을 상대로 오랫동안 싸워 온 역사가 있다. 한 예로 2016년 GC-28 경비정이 아르헨티나 EEZ에서 무허가 조업 중 경고 사격을 무시하고 도주하려다 경비함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 루엔위안위 010호를 격침시킨 사례가 있다.

* 기사 출처: The Maritime Executive, 2022년 2월 6일자

SPRFMO, 남미 공해 오징어 보호 조치 미채택

에콰도르·EU, 오피버 승선·항구 전제 제안했지만 무산

남미 공해 오징어 자원에 대한 보호 조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1월 28일 종료된 남태평양어업관리기구(SPRFMO) 연례회의에서, 에콰도르와 EU는 2028년까지 오피버 승선 및 어획물 항구 전제 의무화 등을 제시했으나 어느 것도 채택되지 않았다.

남태평양에서 중국 국적선은 2009년 54척에서 2020년 707척으로 무려 13배 급증했고, 오징어

어획량은 7만톤에서 35만 8,000톤으로 급증했다.

Undercurrent에 따르면 이달 초 아르헨티나 EEZ에 100여 척의 대규모 원양 선단이 오징어 어획을 목적으로 접근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획시즌이 시작되기 2개월 전부터 이미 55척의 오징어채낚기 선단이 해당 수역을 배회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1월 31일자



日 냉동 살오징어류 '21년 수입 8만 3,064톤

지난해 대비 6% 증가...러시아 증가, 미국 감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년 냉동 살오징어류(빨강오징어, 아메리카대왕오징어 등 포함) 수입량은 2020년 대비 5.6% 증가한 8만 3,064톤이다. kg당 평균 단가는 8% 감소한 415 엔이다.

전체 수입량의 47%를 차지하는 중국산은 3만 8,744톤으로 1.1% 증가했다. 페루산은 21.2% 증가한 2만 738톤, 러시아산은 51.1% 증가한 7,455톤을 기록했다.

한편 미국산 수입량은 1,986톤으로 60.7% 감소했다. 미국산의 최근 2개월 수입량 또한 '21년 11월 337톤('20년 동월 대비 84.1% 감소), 12월 293톤(68%)으로

대폭 감소 추세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품어의 영향으로 인해 용도가 한정된 미국 일렉스오징어 수입이 약세를 보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에는 품질이 좋은 캐나다 일렉스오징어 또한 일본에 반입되었다. 일본 국내 살오징어 어업 침체로 인해 대체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2021년 12월 일본 냉동 살오징어류 수입량은 4% 감소한 8,459톤이며, kg당 평균 단가는 3% 상승한 468 엔이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1월 31일자



中, 포클랜드 영유권 분쟁서 아르헨티나 지지 英 반발

포클랜드 영유권 분쟁에서 아르헨티나를 지지한 중국의 행보에 영국이 반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 분쟁에서 아르헨티나 지지 입장을 유지했고, 아르헨티나 측은 대만을 중국 영토로 주장하는 중국 측 입장을 지지했다.

이에 Liz Truss 영국 국무장관은 “포클랜드는 영연방의 한 가족이며 우리는 포클랜드의 자결권을 옹

호한다”며 “중국은 포클랜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해 6월에도 포클랜드 영유권 문제에서 아르헨티나 지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영-중 관계는 최근 수년간 무역, 홍콩, 인권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악화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대만에 우호적인 서방에 대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기사 출처: Eurasian Times, 2022년 2월 9일자



러시아, 극동 명태 어업 개시

17일 시점 약 8만 5,000톤 어획

러시아 수산청에 따르면 1월 17일 기준 러시아의 명태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약 1만 1,000톤 적은 8만 5,000톤을 기록했다.

수산청 보고서에 따르면 연초 이후 오호츠크해의 구역별 어획량은 캄차카·쿠릴과 서캄차카 약 7만톤, 북 오호츠크 약 2,600톤을 기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어선 수가 줄었고 날씨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현재까지 88척의 어선이 오호츠크해에 출항해 명태, 청어 어업에 착수했다.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에 따르면 16일 기준 캄

차카·쿠릴 해역의 최근 1주간 1일 평균 어획량은 3,900톤으로 지난해 대비 15% 적은 추세로 어획이 진행 중이다. 어획물의 개체당 몸길이는 평균 36.5~42.1cm, 무게는 370~570g이다. 어획물 중 암컷의 비율은 49~56%이다.

한편 북해 오호츠크 해역에서는 청어 어업이 시작되었다. 1월 16일 시점 어획량은 약 2만 5,200톤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월 24일자,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1월 24일자

명태 가격 급등 가능성 제기

수요 증가·공급난 겹쳐

다수 전문가들은 공급망 문제·세계적인 생산량 감소·수요 증가로 인해 2022년 명태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1월 18~20일 개최된 미국 국립수산물원(National Fisheries Institute)의 2022 글로벌 수산물 시장 컨퍼런스(Global Seafood Market Conference) 패널에 따르면, 전 세계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유의미한” 공급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패널은 2022년 전 세계 명태 어획량이 322만톤(지난해 349만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GAPP)의 Ron

Rogness는 2008~2010년 이후 이와 같은 생산량 감소는 처음이며, 2008~2010년과는 달리 현재 명태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기록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부 제품은 이미 역대 최고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4~6온스 개별급속냉동(IQF) 필렛 가격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말까지 1.40 달러로 유지되었으나, 2021년 말에는 두 배 가까운 가격인 2.70 달러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2월 2일자



러시아, 2021년 對중국 수산물 수출 70% 급감

유럽·아시아 등 대폭 증가

러시아의 2021년 대(對) 중국 수산물 수출은 31만 톤으로, 2020년 대비 70% 감소했다.

그러나 러시아 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수출업체들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타 시장의 호황을 통해 활로를 찾았다.

가장 큰 수출 증가를 보인 시장은 유럽이다. 러시아의 대독일 수산물 수출량은 270% 증가한 2만 200톤을 기록했다. 프랑스 수출량 또한 대폭 상승한 9,100톤을 기록했고, 폴란드 수출량은 8,700톤을 기록했다. 영국 수출량은 42% 증가한 7,000톤, 스페인 수출량은 24% 증가한 5,500톤을 기록했다.

유럽 전역으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로테르담 항이 위치한 국가인 네덜란드 수출량은 11만 6,100톤으로, 2020년 대비 3,800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 외 아시아 국가 수출량 또한 급증했다. 러시아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량은 2020년 대비 93% 증가한 8만 600톤을 기록했다.

타국 수출 허브 역할을 하는 부산항이 위치한 한국 수출량은 93만 5,200톤으로 49% 증가해 물량 기준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잡았다.

중국 항구의 폐쇄는 러시아 수출업자들의 타 시장 개척을 자극했다.

2021년 러시아가 나이지리아에 수출한 수산물은 3만 2,200톤으로 2020년의 1.8배에 달한다. 벨라루스 수출량은 2020년 대비 21% 증가한 4만 8,800톤, 키르기스스탄 수출량은 6% 증가한 4만 8,800톤, 카자흐스탄 수출량은 18% 증가한 2만1800톤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수출량은 2020년 기준 3만 2,200톤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월 21일자

美 Aquamar社, 연육 호황기 적극 활용

동종업 인수·공급 다각화·제품 개발 등 추진

미국 연육 공급업체 Aquamar가 지난 12월 경쟁 연육 공급업체인 Shining Ocean을 인수해 자사 그룹으로 통합했다.

Aquamar는 연육 부문 1인자인 Trident Seafood 등의 타 기업과는 달리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연육 주 원료인 알래스카 명태를 어획·가공하는 선단을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 이들이 인수한 Shining Ocean 또한 자사 브랜드인 Kanimi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

Aquamar CEO인 Daryl Gormley는 이러한 기업 구조 덕에 회사가 직접 선단, 쿼터 등을 관리하는 작업에서 자유롭고 타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 기업 IRI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 소매시장 포장 수산물(브랜드 및 소매업체 자사 브랜드 포함) 매출은 30% 이상 증가한 1억 9,7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월 12일자



러시아, 북방영토 포함 쿠릴열도 면세 법안 추진

법인세·부동산세·운송세 등 최대 20년 면제

북방영토 포함 쿠릴열도 면세 법안이 2022년 봄 러시아 국회 하원 제1독회에서 심의 단계에 이르렀다.

러시아 정부는 2021년 11월 쿠릴열도에 면세구역 도입하는 연방법 개정안 “러시아 연방세법 제2부 개정”을 하원에 제출한 바 있다.

2021년 11월 26일에 러시아 정부 회의가 개최되어 해당 개정안의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이 중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법을 정비해 올해부터 진출 희망 기업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세 법안은 전례가 없는 혜택으로, 법인세·부동산세·운송세 등도 등록 후 최대 20년간 면제된다. 해당 제도는 2046년도까지 지속될 계획이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인하, 쿠릴열도 세관절차 무료화,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모든 조치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쿠릴열도 밖에서 처리·가공·유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탄소를 발생시키는 사업, 갑각류(새우 제외) 등 시장가치가 높은 수서생물자원을 대상으로 한 어획(어로)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1년 9월 3일 개최된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북방영토 등을 포함해 쿠릴열도에서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면세를 인정하는 특별구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러시아 정부 당국과 사할린 주정부에 법률 정비 등을 확실히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 기사 출처: 홋카이도기선어업협동조합, 2022년 1월 18일자

노레보社, 2022년 명태 H&G 中 수출 전면중단 계획

명태 H&G 생산 감축 예정

러시아 최대 어업 회사인 노레보의 Sergey Sennikov 부회장에 따르면, 노레보는 2022년 명태 H&G 중국 수출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의 대중국 명태 H&G 수출길이 막힌 반면 PBO(가시 제거) 필렛 가격이 급등한 결과, 노레보는 PBO 필렛 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Sennikov 부회장은 “우리는 2022년 중국에 H&G를 공급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H&G 중 일부는 국내 시장이나 타국 시장으로 갈 예정으

로 전반적인 명태 선단에서 H&G의 생산 자체를 감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ennikov에 따르면 타사와 달리 노레보에는 순수 H&G용 어선이 없다. 따라서 H&G 생산량은 최소한으로 감축될 예정이지만 어획물의 개체 크기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Sennikov는 말했다.

노레보는 향후 수년 내로 극동 명태 트롤선 4척을 신조할 계획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월 18일자



알래스카 태평양대구·명태 A시즌 시작

현재 어획량 9,000톤...평년대비 매우 적어

알래스카 태평양대구·명태 A시즌 현재까지 어획량은 9,000톤으로, 2021년 동기 어획량 3만 5,000톤, 2020년 9만 9,000톤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한편, 현 시점까지 러시아의 명태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4% 많은 14만 1,000톤으로 알려졌다.

태평양대구의 경우 지난해 동기 1만 8,000톤,

2020년 동기 2만 3,000톤이 어획되었으나 올해는 1만 2,000톤에 불과하다.

Tradex는 앞으로 명태 구매 기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구매업자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명태를 확보하도록 조언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1월 31일자

日 마루하니치로, 명태 취급량 61만톤으로 확대

美 Icicle Seafood사 베링해 명태 자산 인수

일본 마루하니치로 그룹이 미국 Icicle Seafood사의 베링해 명태 조업 자산을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인수에는 베링해 명태 쿼터의 6%에 해당하는 6만톤의 쿼터를 보유한 9척의 어선과 Dutch Harbor에 위치한 가공 시설

Northern Victor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마루하니치로의 명태 취급량은 61만톤 규모로 증가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2월 2일자,
Undercurrent News, 2022년 2월 1일자

RFC, 신조선 가공 설비에 2억 달러 투자

덴마크 Carsoe에 의뢰

러시아수산회사(RFC)가 덴마크 기업 Carsoe에 신조선 선상 가공시설 설치를 의뢰하는 두 번째 계약을 체결했다.

이전에 RFC는 7척 가공 시설 발주에 8억 크로네(약 1억 2,2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번 계약으로 RFC는 어선 4척에 5억 크로네를 추가적으

로 투자하게 되었다.

해당 트롤선에는 가공, 포장, 동결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어선 총 길이는 108미터이고, 연간 최대 어획량은 6만톤이며, 150명의 선원을 수용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월 12일자



中 칭다오항, 러시아 운반선에 재개방

다렌항 이어 11일부터 재개

중국 칭다오항이 지난 1월 10일 다렌항 재개방에 이어 1월 11일부터 러시아 냉동 운반선에 공식 재개방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수출업자들은 중국의 항구 재개방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 Dobroflot사 CEO Alexander Efremov는 "(중국의 이번 조치

가) 올해 부가가치 명태 생산량을 늘리고 러시아에 명태를 공급하는 등 시장을 다각화하려는 우리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Intrafish, 2022년 1월 12일자

러시아 2021년 어업 생산량 505만톤

2020년 대비 1.5% 증가

러시아 수산청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어업자들의 2021년 어획량은 505만톤 이상으로, 2020년 대비 1.5% 증가했다. 이는 러시아에서 집계기 시작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어획량 500만톤 이상을 넘어섰던 2018년보다도 많은 기록이다.

극동 어업 어획량은 태평양 연어 53만 9,000톤을 포함, 총 355만톤이다. 바렌츠해가 포함된 북

부 어업 어획량은 약 8% 증가한 54만 1,300톤이며, 대구와 해덕대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불가카스피해 어획량은 18% 증가한 10만 500톤이다. 서부 어업 어획량은 7만 8,630톤, 아조프-흑해 어업 어획량은 6만 4,000톤이다. 외국 영해·공해 어획량은 5만 7,300톤으로 7% 증가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월 13일자

日 '22년 명태 TAC 25만톤...1% 감소

동해 북부, 네무로 해협 등 쿼터 감축

일본 수산청은 지난 1월 26일 2022년 관리년도('22년 4월~'23년 3월) 의견 교환회를 개최해, 명태 TAC를 전년 대비 1% 감소한 25만 500톤으로 설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은 2월 8일

개최될 수산정책심의회로 넘어가서 2~3월 관보에 게재되고 4월 시행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1월 29일자



日 '21년 11월 말 공치 재고 약 7,265톤

약 42% 감소...월간 입고량 3,168톤에 그쳐

일본 농림수산업성 통계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2021년 11월 말 시점 주요 냉동 저장소의 냉동 공치 재고량은 약 7,265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2%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일본 냉동 공치 재고량은 2년 연속으로 1만톤에 미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월간 입고량은 3,168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 대폭 감소했다. 일본 공치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약 60%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11월 냉동 공치 수입량은 동아시아 3개국·지역에서 122~200톤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재고량을 회복하기에는 충분치 못했다. 월간 출고량은 지난해 대비 42% 감소한 1,480톤을 기록했다.

12월 일본 공치 어획량은 392톤에 그쳤기 때문에

재고 보충은 수입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외 타 국가의 공치 어획 상황도 좋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12월 냉동 공치 수입량은 1,397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배로 증가했다. 이 중 대만산 수입량이 1,213톤으로 2019년 11월(1,091톤) 이후 처음으로 1,000톤 이상을 기록하며 대폭 증가했다. 일본 어획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수입산 대체 수요가 점점 더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11월 공치 수입 누계는 총 4,548톤(32% 증가)이다. 수입 단가는 24% 상승한 kg당 388 엔, 총 수입액은 65% 증가한 17억 6,228만 9,000 엔을 기록했다.

〈일본 '21년 11월 말 공치 월별 재고량〉

단위: 톤, 엔

연도	월말 재고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1	8,749	11,398	11,028	10,236	9,559	7,804
2020	14,228	12,950	11,891	10,601	9,902	7,893
2019	23,685	22,223	21,205	19,448	18,385	17,228
2021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6,977	9,193	5,759	5,577	7,265	
2019	7,270	6,900	6,089	6,994	8,987	9,248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12월 13일자



美 하원, 미국경쟁법 통과

SIMP 등 어업 관련 조항 다수 포함

미국 하원이 지난 2월 4일 미국경쟁법안(American Competes Act)을 통과시켰다. 약 3,500억 달러를 지출하는 해당 법안에는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어종을 포괄하는 '수산물 수입 감시 프로그램(SIMP)'을 비롯, 다른 법안의 여러 어업 조항이 포함되었다.

미국경쟁법안에는 '불법조업 및 강제노동 방지법안(Illegal Fishing and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포함되었다.

SIMP는 참치, 대서양대구 등 13종에 대해 17가지의 데이터 요소를 요구한다. Huffman 의원과 Graves 의원은 강제 노동을 비롯한 불법적 수단으로 어획되거나 가공된 수산물의 수입과 의도적인 라벨링 오류 등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경쟁법안은 어획 위치, 관리 연속성 기록의 전자보고서, 어획·전재선 또는 양식 시설의 실소유자 정보, 수의 해상 모바일 서비스 식별 번호를 포함하여 SIMP의 일환으로서 수집해야 하는 추가 데이터 요소를 요구한다.

해당 법안은 검사된 샘플이 특정 연도의 모든 수산물을 대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SIMP 검사를 개선하고, 다른 연방 기관이 수산 공급망의 어느 부분에서 인신매매·강제 노동·아동 노동이 있는 것으로 식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또한 특정 국가의 IUU 조업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국가 어선의 미국 항구 관련 특권을 금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미 연방정부 권한을 확대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2월 4일자

H&G 대구 가격, 상승 추세

현재 톤당 4,800~4,900 달러, 어획 부진·높은 수요 원인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가공업자들이 기준으로 잡는 크기인 1~2.5kg H&G 대구 가격은 2021년 말 톤당 4,600 달러(CFR 기준)였으나 현재 톤당 4,800~4,900 달러로 상승했다.

한 업체 임원에 따르면 노르웨이·러시아산 1~2.5kg 대구 가격으로 톤당 5,000 달러가 거론되고 있다. 유럽 흰살생선 가공업체 A. Espersen 자료에 따르면 대구 가격이 톤당 5,000 달러 이상을 기록한 시기는 2007~2008년(톤당 5,300

달러)이 마지막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르웨이·러시아 선단의 중국 공급이 감소한 반면, 중국 구매업자들은 2월 1일 춘절 연휴가 끝나고 시장에 복귀하고 있다. 소식통은 또한 중국만이 아니라 영국, 미국 등의 수요도 강하다고 전했다.

올해 첫 4주 동안 노르웨이 선단의 대구 어획량은 2만 2,175톤으로 지난해 대비 31% 감소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2월 4일자



美 바이든 행정부, 수산물 노동 인권 문제 초점 발전된 추적기술 도입, 중국 참여 필요성 제기돼

2021년 12월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인신매매 근절 국가실행계획에 따르면, USTR은 타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입 금지를 더욱 장려할 계획이다.

Liz Sherwood-Randall 미국 국토안보보좌관 겸 대통령 보좌관은 이날 USTR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가실행계획을 통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방지와 처벌 및 소외계층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요인 해결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립수산물연구소(NFI) 소장 John Connelly는 12월 23일 연설에서 2022년 수산업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 인권·복지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NFI는 추가 성명에서 노동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주요 해결책으로 미 당국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North Atlantic사와 P.T. Bali Seafood

International사의 오너인 Jerry Knecht는 이러한 움직임이 무역 전반을 중국과 같은 투명하지 않은 시장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Knecht는 정부 정책이나 NGO 개입보다는 기술이 수산물 공급망에서 노동 문제를 근절하는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necht는 상업 위성으로 추적하는 현행 기술이 빛, 열을 사용한 서명에 비하면 C급 기술에 불과하며, 빛, 열 서명 기술이 도입된다면 사실상 완전한 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 NGO Oceana의 미국 캠페인 담당자 Beth Lowell은 미국과 EU가 전 세계 수산물의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산업계의 노동기준 변화를 주도할 힘이 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Lowell은 한편으로 최대 수산물 시장인 중국이 강제노동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강제노동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월 14일자

호주, 인도에 이빨고기 수출 인도 고급 수산물 잠재력 커져

호주 호바트에 기반을 둔 수산 회사인 Australian Longline은 처음으로 인도에 파타고니안 이빨고기를 수출했다.

인도 벵갈루루 주재 Sam Freeman 무역투자 위원은 “인도 시장에서 호주 고급 수산물의 잠재

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도의 식음료 시장이 특히 고급 제품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Mirage, 2022년 1월 20일자



中 연안 도시, 원양어업 보조금 지급 경쟁

어획물 당 보조금, 신규 어선 보조금 등

중국 장저우시는 샤먼시, 푸저우시 등 다른 도시들과 원양산업 유치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장저우시는 연간 어획량이 5,000톤 이상임을 증명 가능한 어업 회사를 대상으로 300만 위안(약 48만 달러)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측은 또한 장저우시로 들어오는 원양 어획물 1톤당 500 위안(약 80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장저우시는 또한 중국 농업농촌부의 승인을 받아 신규 원양어선 건조 비용의 10%를 최대 200만 위안(32만 달러)까지 1회성 수당 개념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 외에 연식 10년 미만의 대형 참치 선망선과 초저온냉동 연승선 구매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된다.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타국

또는 푸젠성 외 다른 성의 쿼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중국 중앙 정부는 원양어업 신규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국 농무부 승인을 받은 기업은 신규 선박 1척당 최대 20만 위안(3만 2,000 달러)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금은 시, 현, 성 지자체 기금으로 조달된다. 게다가 신규 설립 원양 기업은 정부가 관리하는 시 은행에서 일반적인 기업 대출 금리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장저우시의 고시 문서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 기관이 더 많은 해양 신용상품 및 해양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하도록 안내”하고 “어업 대상 대출 상품을 개발하도록” 약속하고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월 26일자

中 농업농촌부 제14차 5개년 계획 발표

양식업·어업 증진 목표

중국 농업농촌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수산 부문의 연간 생산금액을 2020년 1조 3,500억 위안에서 2025년까지 1조 5,000억 위안(2,360억 달러)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생산량(해조류 포함)을 6,900만톤으로 안정화시키는 것과 자국 내 어획 생산량은 1,000만톤 미만으로 하는 것이 목표이다.

해당 계획에서는 ‘원양어업의 고품질 개발 촉진’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정책은 ‘원양어업

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원양 제품 자국 시장 육성 노력을 강화하며, 중국의 어업·운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을 지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노후 원양어선의 개선·변형에 대한 노력 강화 또한 정책의 일부이다.

해당 계획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조업 근절을 위해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중국의 의사가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중국은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극지방 어업 발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2월 7일자



중국 2021년 수산물 수입액 141억 달러

지난해 대비 12% 증가

2021년 중국 수산물 수입액은 2020년 대비 12% 증가한 141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 수입액이 2019년 대비 20%나 감소했기 때문에, 여전히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2021년 중국의 최대 수산물 공급국은 에콰도르였다.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액은 21억 9,000만 달러로 27% 급증했다.

중국의 2021년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액은 18억 6,000만 달러(1% 증가)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였으나, 2021년에는 20여 년 만에 2위로 밀려났다.

캐나다산 수산물 수입액은 29% 증가한 10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산 수산물 수입액은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예외 조항 덕분에 25% 증가한 9억 7,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인도산과 노르웨이산 수입은 각각 15% 증가한 9억 6,700만 달러, 44% 증가한 7억 2,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공급국 중 베트남산의 수입

량만이 크게 감소한 7억 2,200만 달러(33% 감소)를 기록했다.

중국의 오징어 수입량은 2020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9억 8,800만 달러였다. 이 중 대부분이 국내 가공·재수출용이며 중국에 양륙된 중국 원양선단의 어획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다롄, 칭다오 등지에서 가공·재수출을 위해 수입한 H&G 냉동 어류 수입량은 코로나19 검역으로 인해 감소했다. H&G 명태 수입은 2020년 대비 33% 감소한 4억 6,300만 달러, H&G 대구 수입은 1% 감소한 4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의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대 시장은 일본으로, 총 35억 달러(6% 증가)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3위인 한국 수출량은 22% 증가한 1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2월 3일자

통가 화산 폭발로 페루 해변서 기름 유출

3곳 봉쇄·모든 종류의 활동 금지

통가 화산 폭발로 인한 비정상적인 높은 파도로 페루 해변 3곳에서 기름이 유출돼 당국이 봉쇄에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최대 석유·가스업체 렉솔(Repsol)에 속하는 팜피야 정유소는 지난 15일 격렬한 파도로 인해 수도 리마 인근 카야오와 벤타니야 지역 해안에서 원유가 누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팜피야 정유소는 유조선에서 원유를 하역하던 도중 누출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루벤 라미레스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고가 인근 해변 3km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라미레스 장관은 "이 지역은 모든 종류의 활동을 금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 기사 출처: 뉴스원, 2022년 1월 19일자



바렌츠해 대구·해덕대구 쿼터 이월

TAC 삭감으로 인한 타격 완화

지난 1월 13일 노르웨이 통상산업부는 2021년 모든 대구 어업 부문 미소진 TAC의 15%가 2022년으로 이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무역산업부는 근해 어업 미소진 쿼터의 15%가 이월될 예정이나, 연안 트롤선 및 연승선의 경우 13%만이 이월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연안 트롤선과 연승선의 이월분 상한선도 미소진 쿼터의 15%로 상승했다. 해덕대구 미소진 쿼터의 이월 상한선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로 유지되었다.

러시아 부문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러시아 대구·해덕대구 TAC의 14%가 어획되지 않았으며

2022년으로 이월될 예정이다. 러시아의 대구·해덕대구 이월율은 10%로 노르웨이와 동일하다.

노르웨이 수산 가공·무역기업 Insula사의 Morten Hyldbjorg Jensen은 바렌츠해 대구·해덕대구 TAC가 각각 20%, 23% 감소한 70만 8,480톤과 17만 8,632톤으로 설정될 예정이지만, 쿼터 이월분이 TAC 감소분을 보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ensen은 "(이월분)이 약 5만톤 가량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2022년 대구 쿼터의 실질적인 감소량은 20%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5~10%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월 19일자

크릴 오일,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감소 효과 재확인

적은 양으로 효과 보여

전 세계 크릴 어획량의 약 70%를 공급하는 에커 바이오마린(Aker BioMarine)사의 CEO인 Matts Johanssen에 따르면, 크릴 오일 혼합물 임상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트라이글리세라이드(몸의 에너지원인 지방의 한 형태로 과도하게 증가 시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수치가 크게 감소했음이 밝혀졌다.

초기의 2개 임상시험은 5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2018년 초부터 2020년 초까지 진행되었다. 해당 연구는 공복 시 중성지방 수치가 500~1,500mg/dl인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했다. 실험 대상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사용하는 안정 치료 등을 받지 않았다. 실험 결과, 실험 12주차에 혈중 트라이글리세라

드 수치가 감소했고, 26주차의 2차 측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심각한 고중성지방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2건의 대규모 실험 결과, 새로운 크릴 오일 유래 혼합물인 γ -3-PL/FFA는 12주와 26주에 TG 수치를 감소시키고 500mg/dL 미만의 TG 수치를 가진 환자의 비율을 증가시켰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저명한 오메가 3s 연구자인 Willaim S. Harris 박사는 해당 연구에 대해 "1.2g의 오메가-3s만으로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15% 줄인 것은 매우 인상적"이며 "낮은 복용량으로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신선한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NUTRA, 2022년 1월 19일자



美 2021년 수산물 소매 매출 기록 경신

냉동 2.8% 증가...기록적 인플레이션에 영향

마켓 리서치 회사 IRI가 발표하고 텍사스에 본사를 둔 210 Analytics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수산물 소매 매출은 팬데믹으로 인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의 매출을 넘어섰다. 신선 수산물 매출은 지난해 대비 4%, 2019년 대비 30.8% 증가한 71억 달러를 기록했다. 냉동 수산물 매출은 2020년 대비 2.8%, 2019년 대비 40.8%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했다.

210 Analytics의 Anne-Marie Roerink 대표는 “인플레이션과 강한 수요가 맞물려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말했다.

신선 어류 매출은 2020년 대비 6.4%, 2019년 대비 25.5% 증가했다.

냉동 수산물은 매출 기준 가장 상위 자리를 지켰으나, 수량 기준 1.6%, 중량 기준 2.9% 감소했다.

2021년 상온 보관 수산물 판매 매출은 25억 달러로, 인플레이션과 지난해 발생했던 팬데믹 대비 사재기 열풍으로 인해 11.4% 감소했다.

Roerink는 수산물 가격이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에 비해 훨씬 급등했으며, 특히 어류 부문이 2020년 대비 8%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월 12일자

스페인, 부수어획 저감 위한 국가 계획 추진

2030년까지 어선의 환경적 영향 감소 목표

스페인 정부는 국적선단의 부수어획 저감을 위한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는 국가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으로 스페인은 2030년까지 스페인 어선의 환경적 영향을 확연히 줄일 수 있도록 향후 10년 동안 기술적 솔루션 개발을 모색할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각 해양 경계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선단·장비뿐만 아니라 보호종에 대한 어업의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관련 지침이 설정되어야 한다.

- 어업 부문, 자치단체, NGO, 과학자가 함께 참여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어업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데 필요한 문제, 목표, 조치사항을 정의한다.
- 현재 정보가 없는 분야의 경우 선단의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지식 향상

- 위험이 있는 선단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환경적 영향 정도 이해
- 위험이 있는 선단의 어업사망률 감소 조치 분석
- 위험이 있는 선단의 시험 조업 완화 조치
- 어획 어종의 관리 및 방류 계획 개발
- 스페인 해역에서 고래류, 조류, 바다거북 개체수를 연구하고 현황을 파악하며 국제 수역에서 이러한 보호종 모니터링
- 다양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안정적인 법적 틀 정교화
- 여러 부처가 관련된 작업을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조정 기구 창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13일자



MSC 어업 표준 변경 관련 초안 발표 대중에 검토 요청

MSC(해양관리협의회)는 지난 2월 1일에 어업 표준 변경 관련 첫 번째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 발표의 목적은 대중들의 참여이다. MSC 표준은 5년마다 개정된다. 현재 표준은 2018년부터 적용되어 왔다.

초안 변경 사항을 보면 어획통제규칙(HCR)과 어획 전략에서 정의, 점수, 조치 관련 사항이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HCR이 '일반적으로 이해됨'이라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정의되거나 동의되지 않은 HCR'을 의미한다.

초안에서 다른 주요 변경 사항 중 일부는 ETP종

(멸종위기, 멸종우려종, 보호종), 상어 지느러미, 유령 어구(분실되거나 버려진 어구)와 연관되어 있다.

ETP종을 분류하는 새로운 방법이 제안되었다. 추가 보호가 필요한 종과 자원을 식별하기 위해 애양 보존과 어업 관리의 접근 방식을 결합한다. 유령 어구와 관련해서는 어구의 분실을 방지하고 분실 또는 폐기 시 영향을 줄이기 위한 관리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MSC 이사회는 올해 말까지 표준 채택을 목표로 6월에 승인하기 위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2일자

공정 무역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연안국 소규모 어민에게 프리미엄 지원 형태

공정 무역(Fair Trade) 로고는 '전 세계 소외된 어민·농민 지역공동체 지원'과 동일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다.

Fair Trade USA 동남아시아 수산물 코디네이터인 Sven Blankenhorn에 따르면 인증은 가다랑어 채낚기, 손낚시 중심으로 Afritex(아프리카 기반 어업 투자회사) 연승어업까지 포함해 7개 어업이 공정 무역과 연관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말루쿠 제도 부루섬의 황다랑어 손낚시 어업이 2014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다. 2019년에는 Tri Marine의 솔로몬제도 선단(SolTuna 참치 가공공장 납품)이 로고를 획득했다.

Blankenhorn은 공정 무역 인증에 산업형 선망선이 없는 이유에 대해 어선이 31일 이상 연속

으로 바다에 머무르는 어업에 인증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솔로몬제도에 공정 무역 인증을 받은 소규모 선망선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공정 무역 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프리미엄(제품 가격 및 임금 외에 어부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솔로몬에서 가다랑어 프리미엄은 kg당 0.037 달러이다. 솔로몬 어부들이 100톤의 가다랑어를 어획한다고 가정하면 약 3,700 달러의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 손낚시를 하는 어부들이 냉동 황다랑어 로인에 대해 받는 프리미엄은 kg당 0.2 달러이다. 100톤 어획 시 2만 달러의 프리미엄을 받는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14일자



2021년 수산업계 인수합병 65억 달러 돌파 외부 투자 증가 원인

Undercurrent News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수산업과 관련된 인수합병(M&A), 합작, 투자, 사모 등의 자본 거래는 총 194건으로, 코로나19 상태로 인해 크게 침체되었던 2020년 대비 크게 반등했다.

공개 자료 및 Undercurrent News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수산업 전반에 걸친 거래 및 자본 모집(capital raises)의 총 액수는 65억 달러 이상으로, 2016년 51억 달러를 크게 상회했다.

2021년 수산 부문의 자본 유입은 금융투자펀드 및 사모펀드의 지대한 관심과 2020년 세계적인 국가 봉쇄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준비해 왔던 기존 수산 기업 간의 이해가 맞물려 대규모 거래가 성사된 결과였다.

Undercurrent News가 수집한 M&A 데이터에 따르면, 수산물에 대한 외부 투자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정점에 달했다.

지난 2년 동안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주식 시장의 활동이 되살아나면서 외부 투자는 2021년 수산업계 자본 거래의 43%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투자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 PAI Partners 등의 사모펀드는 수산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산하 업체의 수를 꾸준히 증가시켰다.

신기술 및 신생 기업에 대한 외부 투자 또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네덜란드 Aqua-Spark사는 노르웨이 생명공학 회사인 Hofset Biocare 지분 매입 등 한 해 동안 4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참여했다.

2021년에는 특히 신기술, 서비스 공급업체, 디지털 수산물 거래 플랫폼, 인공 수산물 등이 지속적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1월 27일자

노르웨이 고등어 '21년 수출량 30% 증가 어획량은 2014년에 이어 역대 2번째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가 지난 1월 27일 일 본 언론·관계자 대상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노르웨이 고등어 어획량은 42만 2,000톤으로 역대 최고였던 2014년(43만톤)에 이어 최다 어획량 2위를 기록했다.

2021년 수출량은 38만 8,910톤으로 2020년 대비 30% 증가했다. 일본 수출량은 제3국 경유분(8만 7,221톤) 포함 14만3,086톤으로 2020년 대비

15% 증가했다.

NSC는 또한 2022년 고등어 쿼터의 경우, 연안국 작업반 그룹에서 3월 초 합의 및 실행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021년과 마찬가지로 각국이 독자적인 쿼터를 설정해 자국 수역 내에서 조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1월 29일자



올해 4주차 노르웨이 고등어 수출 가격, 2년 내 최고 청어 가격 하락, 대구 가격 유지

노르웨이수산위원회(NSC)의 2022년 4주차 어가 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 고등어의 수출 가격은 2020년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600g 미만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의 2022년 4주차 FOB(본선인도) 수출 가격은 kg당 18.05 크로네(2.04 달러)이다. 지난주 kg당 17.67 크로네 대비 상승했으며, 지난해 4주차 14.54 크로네 대비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2022년 4주차에 수출된 600g 미만 고등어는 총 6,238톤으로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난해 4주차 수출량(1만 987톤) 대비 감소했다. 최대 수입국은 중국과 한국이다.

600g 이상 냉동 고등어 수출량은 10톤에 그쳤다. 냉동 청어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주 대비 13% 하락해 kg당 8.76 크로네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4주차 kg당 6.48 크로네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청어 수출량은 2,144톤으로 지난해 4주차 대비 절반에 불과하다.

한편 노르웨이 대서양대구 선어의 수출량은 1,107톤으로 지난주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다. FOB 가격은 kg당 47.48 크로네(5.38 달러)로 유지되었으나, 지난해 4주차에 비해 27% 높았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2월 2일자, 3일자

日 2021년 고등어 수출량 3.2% 증가 수출액 8% 증가

일본산 고등어의 2021년 수출량은 17만 6,690톤(지난해 대비 3.2% 증가)으로, 역대 5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다. 평균 단가는 kg당 124 엔으로 4.6% 상승했다. 2002년 단가(kg당 133 엔) 다음으로 높은 고액으로, 산리쿠·조반 등 일본 주요 어장의 흥어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단가 상승으로 인해 수출액은 219억 8,603만 엔(7.9% 증가)으로, 2018년(265억 6,932만 엔)에 이어 역대 2위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2021년 일본의 최대 고등어 수출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베트남이다. 수출량은 4

만 6,673톤(1% 감소), 수출액 61억 3,827만 엔(3% 증가)을 기록했고, 단가 kg당 132 엔으로 주요 수출시장 중 최고가였다.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은 태국으로, 수출량 2만 5,647톤(10% 감소), 수출액 27억 1,352만 엔(12% 감소), 단가 kg당 106 엔(2% 감소)를 기록했다. 3위인 나이지리아는 수출량 2만 5,117톤(60% 증가), 수출액 32억 5,439 엔(63% 증가)으로 대폭 증가했다. 단가는 kg당 130 엔으로 2% 상승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2월 9일자



먼 항해

신 석 정

푸른

바다와 하늘

그 사이를 네 영주지로 삼은 작은 갈매기야……

간밤 나리든 비에 상없이 긴 네날개가 또 얼마나 젖었겠니?

수평선을 넘어온 아득 — 한 수평선을 넘어온

물결들은 오늘도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해안의 바위를

찾아 오건만

그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준 일이 없는 바위는 진정 냉정한

녀석들이다

강아지 새끼처럼 기어뎛비는 푸른 물결이 황혼을 전별할 때까지

그러나 노 — 란 월견초가 피기전에

나는 해안에 앉아서 바다에 쓰는 나의 해양시를 소리 높이

읊으랴하노니

갈매기여!

바다는 아직 한 사람의 시인도 손을 대어 본적 없는

푸른 원고지가 아니냐!





2021년 우리나라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1.2% 늘어 연근해·양식·원양·내수면 등 고른 증가로 375.6만톤 기록

해양수산부는 2021년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총생산량이 전년(371.1만톤) 대비 1.2% 증가한 375.6만 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양식, 원양 등 어업 생산 전반에서 고르게 증가하였다.

2021년도 원양어업 생산량은 43.9만 톤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46만 톤)에 비해 4.5% 감소하였고, 전년(43.7만 톤)에 비해 0.4% 증가하였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가다랑어 18.9만 톤(10.9%↓), 오징어류 6.8만 톤(79.4%↑), 황다랑어 6.0만 톤(1.7%↑), 눈다랑어 2.3만 톤(0.9%↓), 명태 2.7만 톤(2.1%↑)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원양어업 생산량 증가는 오징어류가 견인했다. 오징어는 남서대서양 어장의 어황 호조로 지난

해 대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평균 생산량 대비 112%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가다랑어의 경우, 중서부 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참치선망 어선이 감소(28척→23척)하여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이 어획하는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했다.

꽂치와 대구는 전체 어획량이 전년보다 27% 이상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어장 불황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추정된다.

한편, 2021년 국내 어업생산금액은 9.24조 원으로 2020년 8.75조 원보다 5.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원양어업(1.31조 원, 25.8%↑)과 양식업(3.26조 원, 12.8%↑)이 전체 어업생산금액 증가를 견인했다.

연근해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선원 수준으로 외국인 어선원 근로여건 개선에 대해 노사정 합의 완료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인 연근해 외국인 어선원(20톤 이상 승선)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적 선원보다 월 약 45만 원 정도 낮기 때문에 늘어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6년까지 외국인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2022년 1월 18일 합의했다.

또한, 정부와 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번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안 합의를 계기로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현무 항해사 '유퀴즈' 출연 원양 현장 소개 원양어선원 인식 개선에 도움 될 듯

지난 2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 'RAMP'라는 유튜브 채널로 알려진 김현무 일등 항해사(사조 소속)가 출연했다. 김현무 항해사는 방송을 통해 참치 원양어업, 원양어 선원들의 생활, 유튜브 시작 계기 등에 관해 설명하고, 원양어업에 관한 오해나 편견 등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무 항해사는 원양어선을 타게 된 계기에 대해 “수산계 고교 졸업 후 대학교에서 직접 원양어선을 타 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알던 것과 달리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도 재미있고 스펙타클했다”라고 밝혔다.

김현무 항해사는 원양어선 항해사 연봉을 묻는 진행

자 조세호의 질문에 “조금 하다 보면 역대 연봉이 된다. 나도 현재 역대 연봉”이며 “자동적으로 저금을 할 수 있다. 밥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하니 쓸 일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 유재석은 “그만큼 업무 강도가 고될 것 같다”고 묻자, 김현무 항해사는 “힘든 일도 많다. 특히 날씨가 나쁠 때 바다에 있으면 종잇장처럼 날아간다.”라고 말했다.

김현무 항해사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원양어 선을 타기로 마음먹은 후 ‘돈 안 준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 외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부모님도 오해하셨다.”며 “나 이런 거 먹어’, ‘나 이렇게 생활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오징어, 우럭, 광어 등 우리 수산물 8종 40%까지 할인 2월 10일(목)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 개최

해양수산부는 2월 10일(목)부터 2월 23일(수)까지 2주 간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 2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한다.

행사 품목은 우리 식탁에 많이 올라가는 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굴비), 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의 소비가 증가한 우럭, 광어이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리테일,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11개사와 SSG.com, 쿠팡, 위메프 등 20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소비자들은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행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업 등 유관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사 전후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제 할인 가격을 확인하여 소비자가 할인행사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서아프리카 해역 운항선박, 여전히 특별한 주의 필요

전세계 해적사건 발생동향 발표, 전년 대비 해적사건 32% 감소

해양수산부가 2월 4일(금) 발표한 '2021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해적사건은 총 132건 발생해 2020년 195건 보다 32.3% 감소했고, 선원 납치 피해는 57명(20 : 135명)으로 약 57% 줄어들었다.

해적사건이 대폭 감소한 것은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자정활동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나, 선원 납치 사건은 모두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2020년 84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35건의 해적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해적퇴치활동으로 나이지리아 해역에서의 해

적사건이 29건 감소(83%)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는 해적 자체가 감소했다기보다는 국제적 정세와 정치적 관심의 증대가 해적들의 운신의 폭을 줄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우리 청해부대가 파견되어 있는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는 2021년 해적의 공격시도 1건만 발생하는 등 특별한 해적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적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지속적으로 목격되는 등 해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위험해역을 통과할 경우 경계를 철저히 하고, 강화된 안전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김민중 前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임명

해양수산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 10대 원장에 김민중(만 57세) 前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2년 2월 4일부터 '25년 2월 3일까지 3년이다.

김민중 신임 원장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스웨덴 세계해사대학(WMU)에서 해상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 및 해사안전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상선에서의 승선경력, 해양수산부 공

직경험을 바탕으로 선원정책 및 해사안전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두루 갖춘 인사로서 해양 안전문화 조성 및 해양수산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과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 해기사 시험 등 국가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전무	최경삼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신현애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공길웅 과장	589-1605	기획자금, 생산통계
	조성환 과장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기획홍보부	이성재 이사	589-1607	총괄
	김영수 과장	589-1608	홍보
	김민재 사원	589-1609	홍보지원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상진 사원	589-1619	노사, 선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협력
	해외협력 2부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김태호 사원	589-1615	참치연승
부산지부	-	이형균 이사	(051)	총괄
		김현애 과장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공인계량소	이영두 팀장	051)	차량계량
		이동주 팀장	253-3391	차량계량

부서	센터장실	성명	전화번호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 지원팀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권현옥	권현옥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 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이희진 팀장	정수진 행정관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인사, 행정, 정보조사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기구
			044-868-7837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對 일본 업무	
	국제협상 지원팀	양재결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기구	해외진출 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희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42호

발행 : 2022년 2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윤명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건강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양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홍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	-----------------------------------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	------------------------------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	----------------------------------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	---------------------------

	조기류(민어과) 저수용 생선으로 저칼
-------------------------------------------------------------------------------------	--------------------------------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	----------------------------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나다.
-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나다.